

제20권 제1호 **KREI**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포커스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 · 영양개선 지원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제20권 제1호

KREI

북한농업동향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61-820-2000 전송 061-820-2211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61-820-2367
 임채환 herolch@krei.re.kr 061-820-2038

1. 포커스

-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영양개선 지원 3

2. 북한농업 동향

- 북한매체 보도 동향 13
- 국내매체 보도 동향 50

3.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 북중 교역 동향 67

4.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73
-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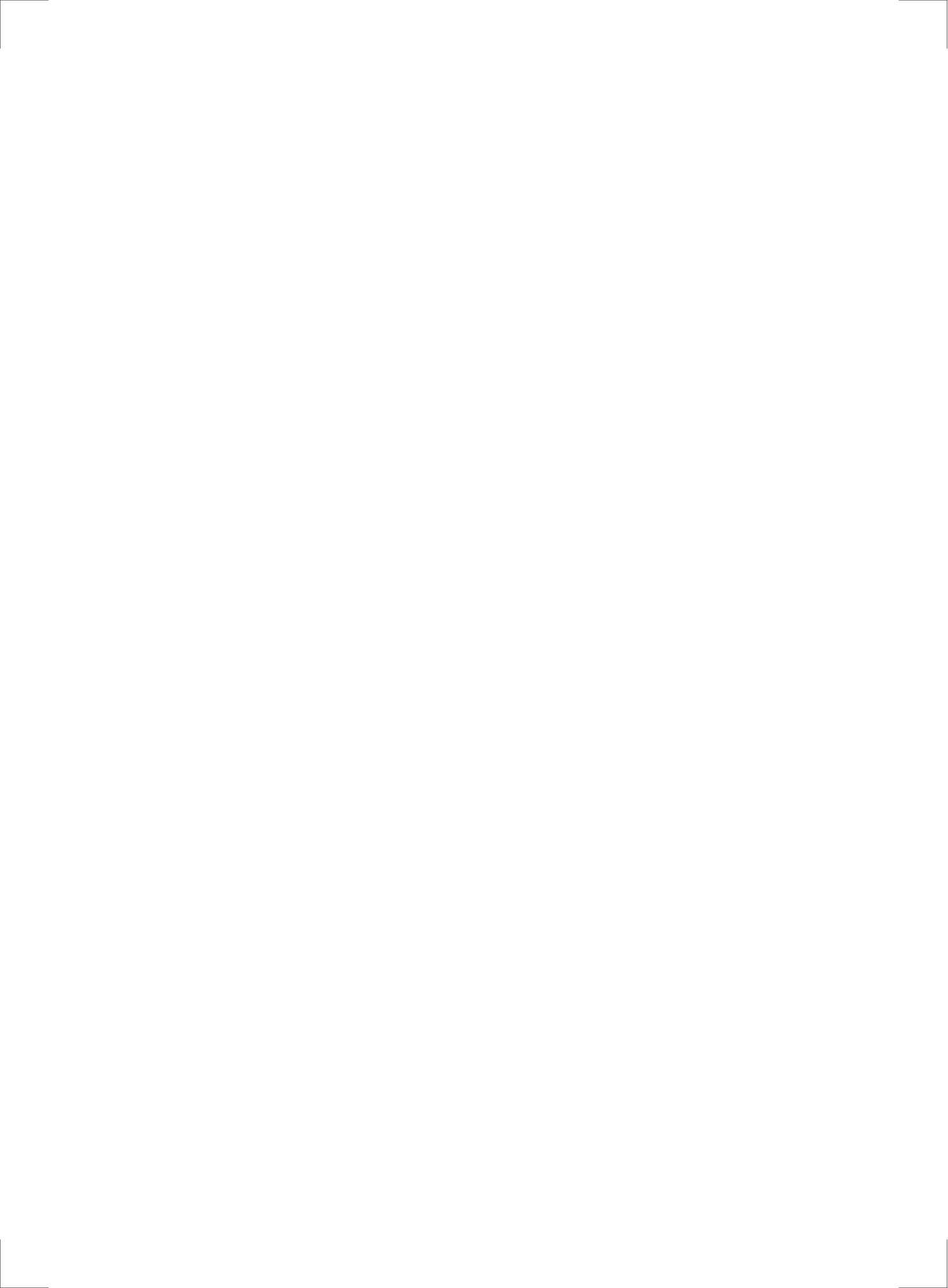
5.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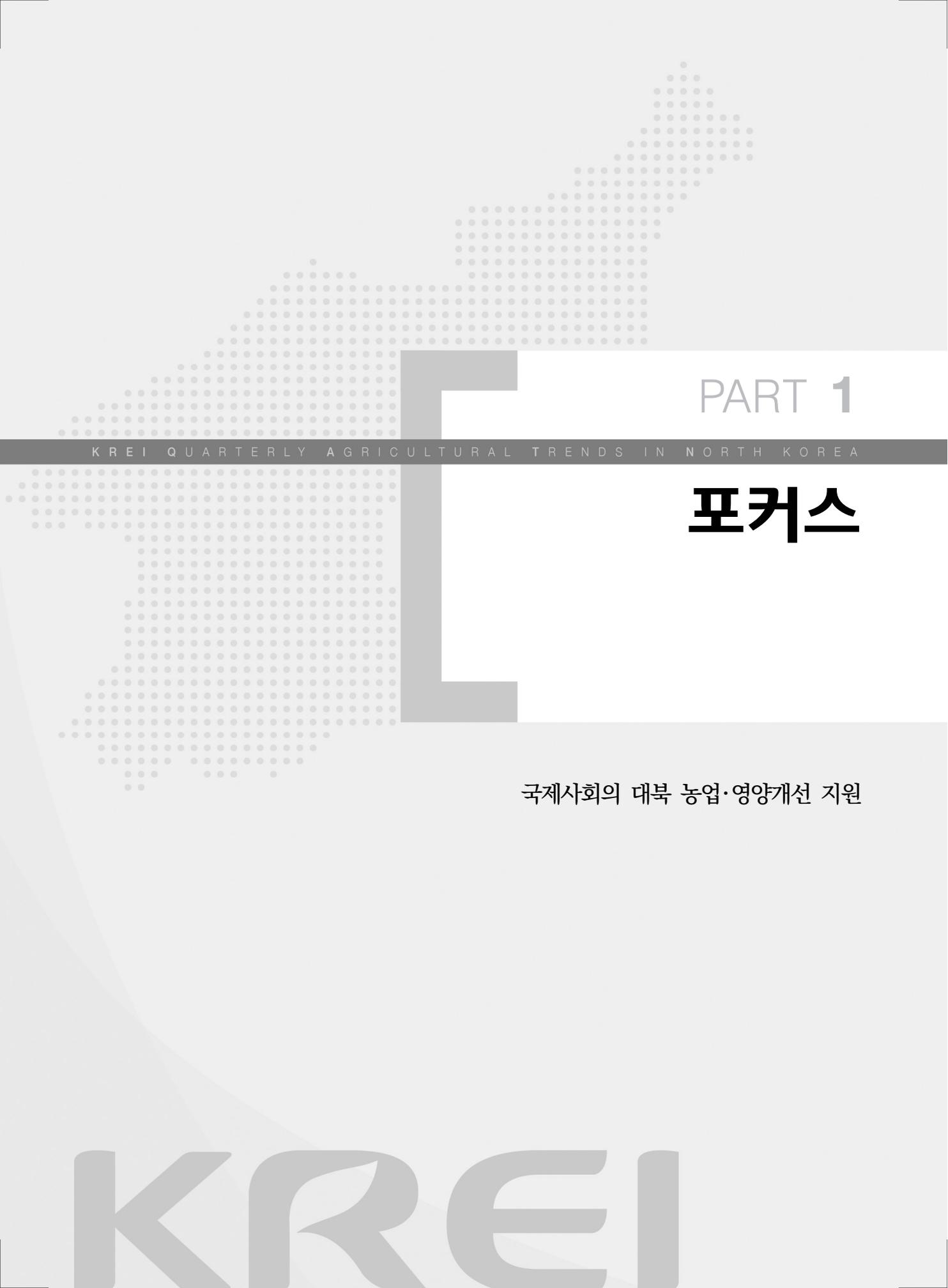
- 가금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 81
- 우리 나라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88

6. 부록

- 남북한 교역 통계 97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101







PART 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포커스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영양개선 지원

KREI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영양개선 지원¹⁾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김 영 훈²⁾

1 북한 농업·식량 개요

□ 만성적 식량부족과 영양부족

- 2017년에 비해 소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식량부족과 영양부족 상태는 여전한.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2017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에 의하면 북한의 기아 점수는 28.2점으로 '심각' 단계임.
- 총인구의 41%인 1,03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undernourished)임.
※ 2016년에는 GHI가 28.6, 영양부족은 1,050만 명

□ 북한 식량부족과 영양부족의 주요 요인

- 산악지대가 대부분으로 북한 국토의 17%만 경작지로 활용
- 집단농장 내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영세농이 대부분
- 농자재는 일상적으로 공급 부족(우량종자, 비료, 장비 등) 상태
- 가뭄과 홍수의 빈발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 일상화
- 이 외에 경제·사회적인 차원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1) 이 글은 UN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가 펴낸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의 2018년과 2017년 보고서 내용 중 '식량안보지원'과 '영양지원' 부분만을 발췌해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이 두 보고서에는 식량안보와 영양지원 부분 외에 '건강지원'과 '위생지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공공배급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 공식적으로는 인구의 70%인 1,800만 명이 이 분배체계 하에서 기본 식품과 생필품을 조달함.
- 그러나 북한의 PDS는 이들의 공급을 책임지지 못함. 2016년 1월 1인당 하루 380g을 배급했으나 7~9월에는 300g 수준으로 감소함. 이는 성인 하루 필요 칼로리의 50%에 불과한 수준임.
- 2017년 초에는 일시적으로 1일 평균 배급량이 400g으로 상승함. 이와 같이 매년 식량배급은 사정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며 정부가 정한 배급 목표량 573g을 크게 하회함.
- PDS의 기능 약화로 주민들은 부족한 생필품을 대부분 시장을 통해 조달함.

참고 1 | 북한의 공공배급제

- 양정성에서 운영
- 매년 수확과 수입 전망에 따라 배급계획 수립
- 2주에 1회 배급
- 곡물은 식량배급소에서, 기름, 설탕, 된장, 간장 등 부식은 국영상점에서 배급(구입)
- 북한 정부는 FAO와 WFP에 1인당 하루 평균 배급량을 통보

□ 북한의 집단농장

- 3,900여 개의 협동농장에서 주민에게 공급할 식량과 농산물을 생산하며, 협동농장 구성원은 공공배급(PDS) 대상에서 제외함.
- 100여 개의 국영농장은 종자, 종축 생산 및 번식, 가금, 물고기, 돼지의 사양 등 특수한 목적의 농축업을 담당함.
- 농민들은 텃밭이나 소토지(텃밭, 경사지) 농사의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함.

참고 2 | 북한의 경사지 농사

- 1900년대 중반부터 산림 경사지 경작을 시작하여 현재 약 36만 ha로 추정
- 산림 경사지는 국토환경보호성이 관리하며, 경사지의 수확량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음.
- 경사지 농사의 주요 작물은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도라지, 참깨, 들깨 등으로 구성

□ 2017년 북한의 식량 생산

- 과거 5년간 북한의 농업생산은 강수량, 기상변화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2017년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 지속으로 모든 경작지가 영향을 받았으며, 식량은 전년에 비해 7.42% 감소한 545만 톤 생산에 그침(쌀 조곡 기준).³⁾

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북한의 재해 위험도

- ‘위험 관리에 대한 EC의 기구간협의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인덱스(IASC Index for Risk Management, INFORM)’로 평가할 때 북한은 191개 국가 중 41위에 해당함.
- 북한의 자연 재해는 주로 홍수와 가뭄으로 야기됨.
- 북한에서 2004~2016년 기간 동안 홍수와 가뭄에 의해 약 620만 명이 재해 피해를 입음.

□ 북한의 가뭄

- 지난 10년간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 빈도가 상승하여 농업생산과 식량안보에 장기적인 불안정을 야기함.
- 가뭄이 주로 주요 식량작물의 이식이 이루어지는 3월부터 6월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전체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최근의 가뭄은 2017년, 2015년 2014년 가뭄 사례가 있음.

□ 북한의 집중호우

- 북한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도 빈발하여, 2010~2016년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함.
- 특히 2016년에는 함경북도의 홍수로 약 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7만여 명은 이재민이 되었음.
- 이 홍수는 산사태를 수반하여 당해연도의 해당지역 농업생산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농업생산도 불안정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3) 이 수치에 포함된 쌀은 ‘도정 전 조곡 기준 중량’임에 유의해야 한다. 도정 후 쌀로 환산한다면 북한의 식량생산 총량은 500만 톤 이하로 낮아진다.

참고 3 2010년대 북한의 주요 자연재해

- 2011년 : 함경남도 홍수, 68명 사망, 3만 명 피해
- 2012년 : 평안남북도 홍수, 231명 사망, 24만 명 피해(21만 이재민)
- 2013년 : 평안남북도, 189명 사망, 80만 명 피해(49,000 이재민)
- 2014년 : 전지역, 2014년 3월부터 18개월간의 가뭄, 1,800만 명의 식량배급에 영향
- 2015년 : 황해남도, 함경남북도 태풍 '고니' 피해, 22,000천 명 피해(15,000이재민)
- 2016년 : 함경북도, 태풍 '라이언록크'로 인한 홍수, 138명 사망, 60만 명 피해 (68,000명 이재민)
- 2017년 : 서부 평야지대, 봄부터 초여름 기간의 가뭄, 78만 명의 어린이와 31만 명의 산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초래

3 식량안보 및 영양지원

- 식량안보 및 영양지원 대상 및 지원목표(2017, 2018년)
 -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지원 대상 규모가 감축됨에 따라 식량안보 및 영양 지원 목표도 소폭 감축됨.

표 1 대북 식량안보 및 영양지원 대상과 목표(2017~18년)

단위: 천 명

	구분	지원대상(A)	지원목표(B)	비율(B/A)
2017년	식량안보지원	18,000	4,262	24%
	영양지원	4,600	2,510	55%
2018년	식량안보지원	10,300	3,985	39%
	영양지원	10,175	2,168	21%

자료: UN OCH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7, 2018

(1) 식량안보 지원

- 목표
 - 식량 생산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함.

- 기본 식량의 충분한 공급을 지원함.
- 반복되는 쇼크와 기상변화에 대한 농장과 농민의 적응력을 강화함.

주목해야 할 사항

- 데이터 : 식량부족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음.
- 영양결핍 : 약 1,030만 명의 영양결핍을 해소함(배급대상자 1,800만 명의 41%).

대응 전략

주요 사업

-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을 증진함.
-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원함.
- 기상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비료, 종자, 증소기자재, 소가축 등을 지원함.
- 생산력이 낮아진 농지의 복구를 지원함.
- 영양 향상을 위한 영농과 경사지 관리를 지원함.
- 농업복구 및 재해관리의 능력향상을 지원함.

표 2 2018년 식량안보 지원의 목표

단위: 천 명

성 및 연령					계
남-녀 성비	남성 <5세	여성 <5세	남성 >5세	여성 >5세	4,000
49-51%	150	155	1,802	1,878	
	4%	4%	45%	47%	

자료: UN OCHA, 2018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March. 2018.

표 3 EU의 대북 프로젝트 지원(EUPS) 단위

EUPS	EU NGOS
EUPS 1	Premiere Urgence International
EUPS 2	Save the Children
EUPS 3	Concern Worldwide
EUPS 4	Deutsche Welthungerhilfe
EUPS 5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EUPS 7	Handicap International

주: EU와 북한의 협약에 의해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EU 지원 NGO를 각각 지정하여 EUPS로 함.
 자료: UN OCHA, 2017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March. 2017.

- 파트너십 : 농업성, 수산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과학원, 임업경영연구소, 양정성 등임.
- 상호보완성 : 식량안보 섹터와 영양 섹터의 긴밀한 정보교환이 필요함.
- 협력 : 식량안보 및 농업 섹터작업단(SWG) : FAO, WFP, EUPS 4가 주도함.

(2) 영양지원

목표

-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수유부를 위한 영양 강화를 지원함.
-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조식량의 균형적인 공급을 지원함.

주목해야 할 사항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부분과 임산수유부의 50%가 영양실조 상태임.
- 영양 부족의 주원인은 식량공급 부족과 위생 불량에 있음.
- 2012년 이후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임.

대응 전략

○ 주요 사업

- 생후 1,000일에 집중한 산모와 영유아의 영양 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함.
- 영유아와 어린이에 최적화된 영양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 미량 영양보조제 지원과 영양실조 관리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표 4 2018년 영양 지원의 목표

단위: 천 명

남-녀 성비	성 및 연령				계
	남성 <5세	여성 <5세	남성 >5세	여성 >5세	
42-58%	800	800	101	440	2,200
	37%	37%	5%	22%	

자료: UN OCHA, 2018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March. 2018.

○ 파트너십

- 보건성, 양정성, 아동영양연구소 등임.

4 식량안보 및 영양지원 부문의 기구별 주요 활동

□ 식량안보 분야

○ FAO

- 전국에서 선정된 협동농장의 식량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두 종자, 채소 종자, 소형 농기구, 비료, 농약, 소가축 등을 지원함(10개 도, 60개 협동농장, 60만 명의 구성원을 목표).
- 농업생산 기술 및 재해 대응 관리를 지원함.

○ WFP

-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식량(Food for Disaster Risk Reduction, FDRR) 프로그램을 추진함(29만 명 수혜 목표).
- 재해 위험지역이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확충을 지원함(제방 복구 및 구축, 산림 복구, 저수지와 농수로 건설 등),
- 기반 건설 참여자에게 'take-home ration'을 제공함.
- 가구 수준의 식량소비에 관한 자료 축적을 목표로 '식량안보평가(Food Security Assessment)'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EUPS 1

- 직접 수혜 3,400명, 간접 수혜 52,600명을 목표로 황해남도 영유아 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함.
- 농축산물 생산 향상과 농축업 기술전문가 및 교수의 능력향상을 지원함.

○ EUPS 2 (2017년)

- 함경남도와 강원도 발육부진 개선을 목표로 함.
- 과학원과 협조하여 영유아 기관에 대한 교육, 온실지원, 가공공장을 지원함.

○ EUPS 3

- 황해북도, 강원도, 평양, 함경북도의 9개 군, 40개 협동농장, 74,500명의 수혜자를 목표로 지원함.
- 기술 지원, 농업생산 및 가공 능력향상, 순환농업, 온실, 텃밭, 자연자원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함.

- EUPS 4
 - 평안남북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등 5개 도의 총 300만 명을 목표로 함.
 - 영양개선 관련 농업생산을 지원함.
- EUPS 5
 - 황해북도, 평안북도, 남포 등 5개 시도의 50,500명을 목표로 지원함.
 - 주로 어린이 및 노인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함.
 - 양어장, 온실, 물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지원에 특화함.
- SDC(스위스개발협력청)
 - 황해북도, 강원도를 대상지역으로 함.
 - 지속가능한 생활 및 재해 완화 프로그램(SLDM) 추진을 지원함.
 - ‘임농복합경영’과 ‘바이오-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토양과 수자원 보호 활동을 추진함.
 - 탈지분유 제공을 통해 ‘WFP 프로그램’ 수행에도 기여함.
- Fida International/FAHRP
 - 강원도, 평안북도의 2만 직접 수혜자와 10만 간접 수혜자를 목표로 지원함.
 - 무균 씨감자 생산과 감자 생산 지원에 특화함.
- 영양지원 분야
- UNICEF
 - 6~59개월 사이 160만 영유아, 어린이의 영양지원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함.
 - 6~23개월 사이 50만 영유아와 70만 임산부를 위한 미량영양소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함.
 -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데이터 분석 작업을 수행함.
- WFP
 - 9개 시도 60개 군의 어린이와 여성 60만 명을 목표로 식량과 영양 지원사업을 추진함.
 - 11개 식품가공공장의 운영 및 기술을 지원함.
 - 식품 및 영양지원사업의 공급망 유지를 지원함.
- EUPS 4
 - 4개 시도 6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여성을 목표로 영양개선을 지원함.

PART 2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북한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농업정책

◆ 김정은 및 주요 간부의 농업 부문 동향

신년사 - 김정은(로동신문 2018.01.01.), 농림축산식품업 분야 발취

-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가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 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을 늘리고 예년에 보기도문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 있게 벌려 인민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 올해 인민생활 향사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키우고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 꾸리기와 단천발전소 건설, 황해도 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국산화하며 자립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생산 증가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까.

승리의 이정표따라 농업 생산에서 대비약을 -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로동신문 2018.01.02.)

-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고 농업 부문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 지난해 당의 뜻을 받들어 우리 농촌들에서 다수확운동을 힘차게 진행하고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킨 결과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과 작업반 대열을 늘리고 보기 드문 과일 풍작을 이루었음.
-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싹이 넘쳐나야 함.
 - 당의 농업정책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우량종자와 다수확 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과학농사를 진행하겠음. 농업 과학기술 발전을 앞세우고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노동력과 영농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 절약형 농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겠음.
 -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축산물과 과일, 온실 남새와 버섯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최룡해의 송도원종합식료공장 현지료해(로동신문 2018.01.09.)

- 최룡해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돌아보았음.
 - 도안의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룡해는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 최룡해는 이어 갈마식료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는 물고기 가공품들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음.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진행(로동신문 2018.02.22.)

○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가 2월 2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음.

- 회의에서는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 수행 상황과 지난해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의 성과와 교훈이 평가되고 올해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김책, 강계시, 세포, 운산, 연탄, 대흥단, 리원, 문덕, 송화군 등의 경험들이 높게 평가되었음. 거리와 마을들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수산자원과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들도 소개되었음.
- 토론에서는 산림복구전투 2단계 목표 수행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임업 부문에서 당의 순환식 채벌 방침을 받들고 통나무 생산 계획과 공급질서를 바로세우며 장약통제를 잘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음.
 -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철도, 석탄공업부문에서 산림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토론들에서 언급되었음.

◆ 과학영농

우리 식의 식물조직배양시약들을 개발 - 숙천농업대학에서(로동신문 2018.01.11.)

- 숙천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현실 조건에 가장 적합한 저온, 고압 조건을 만족시키는 푸린염기 합성장치를 만들어 시약 개발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안정성이 담보된 아육신 합성 장치를 완성하고 최적 반응조건을 찾아내었음.
- 그 결과, 개발된 시약들이 나무모의 뿌리 성장을 촉진시키고 나무 종자의 발아율, 나무모의 성장속도를 높여 생존율을 100%로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들과 알곡 및 남새작물들의 영양 관리와 생장 조절, 성장촉진제로 이용되는 등 용도가 다양하고 도입 전망이 컸음.
 - 숙천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 생산경험 - 새로운 유기생장활성촉진제 《기림》
(로동신문 2018.01.18.)

- 새로운 유기생장활성촉진제 《기림》은 첨단기술인 미생물공학기술, 전기전자 및 자동화공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의 자재와 원료로 새로 연구개발한 제품임.
 - 첨가제의 중요한 특징은 생장 촉진 작용과 발효첨가제로서의 기능, 살충 및 살균 작용능력을 다같이 가지고 있는 것임.
 -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업 생산단위들에서 도입 시험을 진행하고 농업성 과학기술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성으로 인정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었음.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 - 리과대학에서(로동신문 2018.01.19.)

- 리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효능 높은 농작물 성장조절제 디씨피티에이(DCPTA)가 넓은 면적에 도입되어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
 - 이 성장조절제는 식물호르몬이나 식물체내에서 식물호르몬의 분비와 평형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제조하여 농작물의 종자나 식물체를 처리하면 가뭄과 병해충 등에 대한 견딜성을 높이고 생육을 조절하여 수확 기일을 앞당기면서도 수확고를 훨씬 높일 수 있음.
 - 이런 물질들은 정보당 사용량이 대단히 적으며 사용방법이 간단해 증수효과가 큼.
 - 디씨피티에이는 정밀화학제품으로서 첨단수준의 정밀유기합성기술을 가진 일부 나라들에서만 제조하고 생산할 수 있어 이러한 화학물질들의 제조방법과 농작물에 대한 적용방법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디씨피티에이는 뿌리활성을 높여주고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동화를 촉진함. 그리고 엽록소의 활성을 높여주어 농작물의 생육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특이한 성질로 콩, 강냉이, 논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임.
 - 이 농작물 성장조절제를 과수, 약용식물, 버섯 등에 적용하여도 품질을 높이고 수확 기일을 앞당기면서도 수확고를 높일 수 있음.
 - 도입단위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콩종자에 새롭게 연구완성한 종자적심처리기술을 적용하면 정보당 디씨피티에이의 사용량을 줄이고 약제분무에 동원되던 많은 노동력을 절약하면서도 콩의 수확고는 110~120% 이상, 강냉이종자에 도입하면 수확고를 110~115%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함.

농업 생산의 과학화를 적극 추동 - 김제원해주농업대학에서(로동신문 2018.01.23.)

- 농기계연구소에서는 논갈이와 씨뿌리기, 복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밀보리파종기를 연구완성하고 해당 농장에 생산도입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해 밀보리파종 기일을 줄였으며 씨뿌리기 작업의 품질을 높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음.
 -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농업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식물성 농약과 유기질발효촉진제, 혼합살초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음.
 - 농학부 육종학강좌에서는 거친 유기질을 짧은 기간에 발효시킬 수 있는 복합미생물을 연구개발하고 도안의 여러 농장들에 도입하여 유기질 비료의 시비량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면서도 수확고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음.
 - 농학부 식물보호학강좌에서는 물이 부족한 논에서도 김잡이물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논벼용 혼합살초제 연구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음.

사회주의전야에 과학농사 열풍 휘몰아친다(로동신문 2018.02.06.)

종자사업 관련

- 북한군은 북한의 기후 풍토 조건에 맞고 수확고가 대단히 높은 새 품종의 발벼와 강냉이를 육종하였음.
 - 이들은 과학농사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종자가공공장들을 건설하고 모든 종자들을 정선, 선별, 피복처리까지 종합적으로 하여 협동농장들에 공급하는 체계를 세웠음.
 - 북부고산지대로부터 서해벌방, 중간, 산간지대의 농촌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 배치를 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논벼, 강냉이, 밀, 보리, 콩을 비롯한 다수확우량 품종 배치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 2월 6일 기준, 전국적으로 90% 이상 달성하였음.

활발히 전개된 다수확 농법 도입 사업

- 다수확 농법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농업성과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었고 과학농사 열풍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었음.
 - 또한 북한 협동농장들에 농업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이 잘 꾸려졌음. 농업성과 과학연구기관,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고 영농사업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실시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의대책 할 수 있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가 확립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논벼농사에서는 이른콘모, 원그루콘모, 영양알모 등 여러가지 앞선 벼모기르기방법들과 벼

소식재배, 벼강화재배 방법이, 강냉이농사에서는 여러포기모아심기와 두줄모아심기에 의한 겹재배, 품종섞어심기, 이삭목찌르기, 오사리벚기기 등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다수확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종자 처리제로 이목을 끄는 《기림2》 호(로동신문 2018.03.19.)

- 《기림2》호종자 처리제는 주변에 존재하는 미생물상을 유리하게 고정시켜 물질 대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함.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낮은 온도 조건에서도 발아율을 높일 수 있게 함.
 - 또한 일반 토양은 물론 염기성 토양에서도 여러가지 병을 막고 모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초기 영양 상태를 개선함. 이 종자 처리제에 들어있는 미립자화 된 여러가지 구성 성분들은 높은 침투력을 가지고 있어 종자의 싹트기를 2일 이상 앞당기게 함.
 -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논벼에《기림2》호종자 처리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함.
 - 신천군 화산협동농장에서는 온도가 심하게 내려갔지만《기림2》호처리구에서 98%이상의 높은 발아율을 기록하였다는 함.
 - 룡강군 양곡협동농장, 온천군 성현협동농장, 운전군 동삼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이 종자 처리제의 효과를 인식하여 종자 처리제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과학농사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열의 - 전국농업부문 일꾼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 참가하고(로동신문 2018.03.19.)

- 박천군 신평협동농장에서는 논벼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 문제를 놓고 전국농업부문 일꾼들을 위한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었음.
 - 전습회에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꾼들, 내각과 농업성의 일꾼들, 각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처장들, 농업연구원 연구사들과 평안북도안의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꾼들 수백명이 참가하였음.
 - 최근 벼선충병발생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종자고르기와 소독을 철저히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지난해 함경남도에서 만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음.
 - 또한 벼강화재배에 대한 농업연구원 연구사의 해설과 큰모, 영양랭상모, 영양알모, 영양단지모, 논벼긴썩큰모 등 여러 형태의 모들에 대한 씨뿌리기와 모판 준비전습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다음으로 벼모판 관리를 실수 없이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취급되었음.

◆ 기타

사회주의농촌지원열의로 들끓는다(로동신문 2018.01.06.)¹⁾

- 성, 중앙기관들과 각지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힘차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 새해 첫 금요일로동 진행

-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5일 농사 차비가 진행되는 평양시 안의 농장들에서 새해 첫 금요일로동을 진행하였음.
 - 이들은 농업전선을 힘차게 지원할 열의를 안고 질 좋은 거름과 많은 영농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였음.
 - 정무원들은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으로 향하였음. 자동차들에 소농기구들과 거름을 가득 싣고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 도착한 내각사무국, 금속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룡해운성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정무원들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었음.
 -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전력공업성, 수매량정성, 로동성, 국가설계총국 등 여러 단위의 정무원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일손을 도와 영농작업을 진행하였음.
 - 국가계획위원회, 철도성, 기계공업성,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을 비롯한 많은 단위 일꾼들도 새해영농 작업이 진행되는 포전들에 나갔음.

평양시에서

-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힘차게 지원하고 있음.
 -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일꾼들은 해당 단위들에 나가 거름확보정형을 이해하고 운반조직사업을 진행하였음.
 - 정초부터 거름원천을 찾아 집중적인 전투를 전개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식료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 평양베어링공장, 평양신발공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들이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장만하였음.
 - 5일에 평양시에서는 1만 5,000여 톤의 거름을 수백대의 자동차에 실어 시안의 농장들에 집중수송 하였음.

1) 2018년 1월 7일 황해남도 등 4개 지역의 지원 기사가 보도되었으나(은 나라가 사회주의농촌을 힘차게 지원) 관련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생략함.

평안남도에서

- 평안남도에서 사회주의농촌을 힘차게 지원하고 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에서 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음.
 -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체신관리국의 일꾼들은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음. 도 탐사관리국,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는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냄으로써 많은 거름을 마련하였음.
 - 안주시와 개천시, 평성시, 덕천시, 성천군, 북창군들에도 질 좋은 거름을 신고나갔음.

평안북도에서

- 평안북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많은 양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도급기관들과 신의주시안의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많은 거름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농사 차비를 시작한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음.
 - 신의주시 본부동, 민포동, 채하동, 해방동을 비롯한 수십개 동의 주민들도 많은 도시거름을 시안의 농장포전들에 실어보내는 성과가 있었음.
 - 염주군과 정주시, 광산군과 선천군, 동림군과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주민들도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농장포전들에 실어냈음.

강원도에서

- 강원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힘차게 지원하고 있음.
 - 농업생산에 필요한 많은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줄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였음. 도급기관들과 원산시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 많은 양의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원산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많은 양의 도시거름을 시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눈부신 비약, 자랑찬 전변(로동신문 2018.01.16.)

- 자강도가 변화하고 있어 그 일부를 소개함.

전기화의 열풍

- 자강도의 발전소들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사회주의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자강도에는 홍주청년1호, 2호발전소 등 백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들이 있음.

잡업도의 자랑

- 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의 지시대로 뽕밭을 조성하여 고치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 만포고치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산비탈 뽕밭에 관수를 할 수 있게 2단양수장과 수백㎡의 물탱크를 건설하고 해마다 7만 그루 이상의 뽕나무모를 생산하였음. 그리고 100 정보의 면적에 뽕나무모를 심고 가지휘여묻기방법도 받아들여 뽕잎 생산을 늘렸음.
 - 성간군 성하잡업전문협동농장, 초산군 앙토협동농장에서는 도안의 모든 잡업부문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좋은 품종의 뽕나무들을 밀식으로 심은데 맞게 비배관리를 기술적 요구대로 하여 뽕잎 생산을 늘렸음.
 - 도에서는 또한 100여 정보의 뽕나무모 생산기지를 새로 만들 약 1,000정보에 림농복합경 영방법으로 뽕나무를 심었음. 또한 4천정보의 뽕나무밭을 우량품종뽕나무로 개조하였음. 도안의 연구사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소독약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생산하였음.

은을 내는 축산기지들

- 자강도에서는 닭공장들과 오리공장, 돼지공장들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방목지에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소,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들이 많이 있음. 해마다 수천 톤의 고기와 수천만 개의 알이 생산되어 노동자와 강계시민들, 배움의천리길학생소년궁전, 강계육아원 등에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 자강땅에는 강계돼지공장과 흥주닭공장, 강계닭공장, 강계오리공장, 강계목장 등이 현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수확열의로 충만된 과학적인 농사작전 - 농업성 일꾼들과 나눈 이야기(로동신문 2018.01.18.)

-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하여 농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농업성 일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음.
- 기자: 높이 세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성을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이 어떤 방향에서 한해 농사를 진행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부국장 리경록: 지난해 농사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해에는 냉습지, 염피해지, 물 부족지 등 불리한 조건으로 소출이 떨어졌던 단위들을 추켜세워 어디서나 다수확을 낼 수 있게 하는데 중심을 두었음.
 - 또한 우리는 올해에 다수확 단위의 대열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세웠음.

- 종자는 알곡 생산에서 선차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짐. 지금 성과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등에서 지방별, 품종별 수요에 맞게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도입 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실례로 발벼 농사를 나라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내밀어 《발벼24》호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들의 도입 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낮은온도건달성과 가뭄건달성이 높은 이삭무게형 발벼 품종들을 선정하고 물부족논, 논벼, 강냉이저수확지들에 발벼를 심어 정보당 소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지도와 영농 물자보장대책을 세웠음.
 - 농업성에서는 다수확 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영농 공종을 과학기술적으로 내밀어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 있음.
 - 우선 과학기술전당 과학기술 보급망을 통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들의 과학기술 보급기지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적시에 보급일반화하게 하였음. 또한 농업성으로부터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망을 통한 기상예보와 농작물 생육예보, 영농기술문답봉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 우리 농업성에서는 숙천군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1개 단위를 그리고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도 1개 협동농장, 1개 작업반을 과학농사본보기단위로 정하고 과학기술역량을 집중해주면서 영농 물자보장을 선행시켜주어 과학농사경험을 만들고 일반화하고자 함.
 - 그리고 영농 공정별 기술전습회, 보여주기, 기술경험 발표회 등을 해당 단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자 함. 또한 마른논갈이와 썬레치기, 깊은층 비료주기와 간단물대기방법을 비롯한 물, 연유, 비료절약형 재배 방법들과 불경재배, 이랑재배, 두둑재배, 우렁이 유기농법, 벼강화재배 방법 등을 받아들여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농작물 생육을 개선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음.
- 기자: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국장 박경철: 우리는 올해에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음. 삼지연군, 백암군의 감자농사와 세포지구 축산기지운영에 필요한 종합발갈이기계, 파종기, 먹이절단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면서 지난해 시제품으로 생산한 벼종합수확기를 비롯한 여러 종의 농기계들에 대한 운영 시험과 지구 장비 제작을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려고 함.
- 이와 함께 트랙터 부속품들을 영농 공중에 앞세워 생산보장하며 농업성 농기계연구소와 사리원트랙터 부속품공장, 함흥연결농기계공장, 북청과수기계공장, 남시축산기계공장을 비

릇한 농기계제작 및 부속품 생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세계적 수준의 농기계들을 우리 식으로 설계하고 질 좋게 만들어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 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워 나가고 있음.

식수절을 맞으며 온 나라가 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조선중앙통신 2018.03.01.)

- 북한은 식수절을 맞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봄철나무심기에 들어갔음. 이날에 175만 여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하략)²⁾

2 농림축산업

◆ 농업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겠다(로동신문 2018.01.04.)

- 미곡리에서는 지난해의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우리는 우량 품종과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맡겨진 알곡 생산 과제를 수행하였음.
 - 우리는 올해에도 우량종자와 다수확 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겠음.
 - 현대농업 발전 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노력하고 모든 농사일을 철저히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겠음.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더 많이(로동신문 2018.01.05.)

- 농업근로자들이 부식토 확보를 진행하고 있음.
 - 이들은 매일 수백 톤의 부식토를 확보하였음. 앞선 대용비료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펼쳐놓을 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 있음.
 - 신천군, 연안군, 회령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 고 하면서 모판 부식토 확보를 일정 계획보다 2배 이상 수행하고 있음.

과일대풍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 - 북청군일꾼들과 근로자들(로동신문 2018.01.05.)

- 지난해 말에 200여 정보의 토지 정리와 300여 정보의 구덩이 파기를 끝낸 일꾼들과 근

2) 본 기사에는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각지의 식수행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생략함.

로자들은 자동차와 트랙터, 달구지들에 거름을 신고나갔음.

- 많은 발효 퇴비와 흙보산비료를 생산한 종산, 초리, 봉흥과수농장의 근로자들은 대용농약으로 병해충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설비를 갖추어놓고 식물성 농약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애국의 열정 차넘치는 농장별 - 신의주시 토성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1.08.)

- 신의주시 토성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 우렁이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그 덕을 톡톡히 보았으며 올해에도 우렁이 유기농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농사일을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농장과 작업반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차게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음.

첫 한주일동안에 수만 톤의 거름을 - 북창군에서(로동신문 2018.01.10.)

- 북창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새해전투 첫 한주일 동안에 3만 5천여 톤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내었음.
- 이곳 일꾼들은 올해의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하여 농장원에게 거름 생산을 독려했고, 트랙터와 발구를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들이 거름실어내기에 집중시켰음. 그리하여 군에서는 첫 한주일 동안에 3만 5천여 톤의 거름을 실어내었음.

크나큰 믿음에 과일증산으로 보답해가리 - 과일꾼일꾼들과 근로자들
(로동신문 2018.01.10.)

-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첫 전투 하루 동안에 7,000여 톤의 니탄캐기 및 운반을 진행하고, 3일 동안에 1만여 톤의 흙갈이와 유기질 비료 생산원료를 확보하였음. 1월 8일에는 지난해와 맞먹는 양의 흙보산비료 원료를 마련하였음.
- 신대, 염전, 송곡농장에서는 정보당 30톤의 니탄을 실어내었고, 지난해 가뭄피해를 받은 세교, 오정, 산수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의 포전에 실어내었음. 지금 과일나무들의 꽃 상태는 대단히 좋으며 군에서는 과학적인 가지자르기에 집중하고 있음.

농사 차비작업으로 황남땅이 끓는다(로동신문 2018.01.1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에서는 새해 5일 동안에 이들은 320만여 톤의 거름을 생산하고 120만여 톤의 거름을 포전에 실어냈음.
- 또한 20만여 톤의 흙보산비료와 18만여 톤의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고 1만여 정보의 흙갈이와 냉습지개량을 진행하며 새해농사 차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

정보당 거름 30톤을 낼 목표밑에 -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로동신문 2018.01.12.)

-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새해 첫 한주일 동안에 정보당 거름을 10톤 씩 증산하여 실어내었음.

유기광물질복합비료 생산을 중시한 까닭 - 금야군 청동협동농장에서
(로동신문 2018.01.12.)

- 금야군에서는 예전 사례를 분석하여 유기광물질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이용한 것이 소출을 높이는 것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일반적으로 화학비료를 포전에 그대로 치면 농작물이 일정한 정도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낭비되지만, 화학비료를 유기광물질복합비료와 섞어 기술적 요구에 맞게 썼더니 그 효과가 훨씬 높아졌음.
 - 그 원인은 유기광물질복합비료 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물질이 화학비료의 손실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임. 그리고 철, 규소, 망간, 동, 아연 등 여러가지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유기광물질복합비료를 겉층이 아니라 깊은 층에 묻어주어 농작물이 영양원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임.
 - 일꾼들은 지난 시기 소출을 높인 경험에 기초하여 논에는 정보당 1톤, 밭에는 정보당 2톤 씩 낼 계획을 세웠음. 이에 따라 그들은 충분한 양의 유기광물질복합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망간토, 재를 비롯한 원료를 넉넉히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하였음.

농업전선을 힘차게 지원 - 각지 청년들 농사 차비에 역량 집중(로동신문 2018.01.12.)

- 황해북도안의 공업부문 청년들이 새해에 들어와 하루 동안에 1만여 톤의 질 좋은 거름을 협동벌들에 실어내고 농촌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남도의 도급기관, 기업소, 대학의 청년학생들이 하루 동안에 500여 톤의 질 좋은 도시 거름을 장만하여 백송협동농장을 비롯한 평성시안의 협동농장들에 실어 보냈음.
 - 황해남도안의 농업부문 청년들이 농사 차비작업에 집중하고 있음.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의 청년들은 새해 첫 일주일 동안에 농장 수준에서 5,000여 톤의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포전들에 보냈으며 영농자재 확보와 농기계 및 소농기구 수리 정비를 성공적으로 끝냈음.

지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 - 천리마구역에서(로동신문 2018.01.18.)

- 오수정화장들과 오수망들 그리고 1만 수천개소에서 많은 거름을 확보할 수 있었음.

- 특히 오수정화장들의 바닥 감탕은 훌륭한 거름으로, 감탕에는 주민세대들의 생활오수가 고이고 잘 썩여 썩여 있고, 부식질 함량이 많고 각종 미량원소가 들어있어 지력을 유용함. 감탕이 넓은 면적에 1m정도의 두께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양도 적지 않음.
- 25일 동안에 올해 포전에 내기로 한 거름량의 50%에 달하는 오수정화장바닥감탕을 파서 실어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음. 이 작업에는 농장원들만이 아니라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총동원되었음.
- 일꾼들은 감탕을 적시에 포전으로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도 전투적으로 하였음. 그리하여 매일 감탕 덩어리들을 가득 실은 수십대의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운전기재들이 포전으로 달려 나갔음.

흔한 원료로 효능 높은 영양액을 -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1.18.)

○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서 만든 영양액은 농장의 어디에나 흔한 니탄, 닭배설물, 벧짚재를 가지고 만듦.

- 농장에서는 이 영양액을 이용하여 종자 처리는 물론 시기별, 작물별로 잎덧비료주기를 진행하였음.
- 또한 생산 원가도 매우 낮음. 후민산염 생산과 원료 소비량을 대비해 본 결과, 원료소비량이 감소하고, 실수율은 올라갔음. 특히 원가의 많은 몫을 차지하던 가성소다 대신 농장에 흔한 벧짚재를 이용하니 경제적임.
 - 농장에서는 겨울철에 캐서 적당한 크기로 무쳐 놓았던 니탄을 영양액 생산에 이용함. 이는 니탄이 풍화작용을 받기 때문에 부수기 쉬우며, 캐낸 니탄을 채로 칠 때 품이 적게 들기 때문임.

2배 이상의 거름을 생산 - 함주군 련포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1.18.)

○ 함주군 련포협동농장의 작업반 초급일꾼들은 작업을 앞두고 정대, 함마 등 작업 도구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력 조직을 만들었음. 초급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같이 얼음장을 꺼내고 부식질 함량이 풍부한 감탕을 하루 50여 톤 씩 파냈음.

- 제7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작업 과제를 매일 넘쳐 수행하였음. 제4작업반에서는 트랙터, 달구지를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들의 이용률을 높여 며칠 동안에 200여 톤의 감탕을 논밭에 실어냈음.
- 일꾼들은 바닥파기작업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가정들의 퇴적장 바닥 흙을 논밭에 실어내기 위한 사업도 내밀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음.

그림 1 북한의 농사차비 전경(1)



자료: 로동신문. 2018.01.18.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로동신문 2018.01.18.)

○ 새해농사 차비작업에 펼쳐나선 은파군 류정협동농장 제4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더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꾼들이 영농실천을 통하여 우월성이 입증된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조직사업을 만들고 있음.
- 이들은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양과 품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 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농장원들에게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있음.
 - 작업반원들은 원료혼합과 온도보장 등 흙보산비료 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 나가고 있음.

거름 생산에서 연일 혁신 - 연탄군 읍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1.20.)

○ 연탄군 읍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거름 생산과 실어내기 작업에서 성과가 있었음. 거름 생산과 실어내기 작업에서는 제2, 3작업반의 성과가 가장 컸음.

- 제2작업반의 초급일꾼들은 분조별, 세대별 거름 생산 과제를 정확히 주고 거름 생산이자 곧 알곡증산이라는 것을 명심한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매일 맡겨진 과제를 2배로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제3작업반의 농장원들이 거름원천을 모두 찾아 내어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생산된 거름을 적시에 포전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제4작업반에서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벌리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질 좋은 거름을 포전들에 실어내고 있음.

- 현재 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1.5배 이상의 거름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있음.

다수확의 돌파구를 열어나간다. - 강서구역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로동신문 2018.01.21.)

○ 강서구역에서 과학농사의 열풍이 불고 있음.

○ 강서구역에서는 지난해 당의 뜻대로 현실에서 우월성이 입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알곡 생산 계획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 다수확작업반, 다수확 분조, 다수확 대열이 급속히 늘어났음.

- 자체의 실정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하고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구역적인 범위에서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음.
- 지난해 구역에서는 수집 대의 트랙터에 대한 집중적인 수리와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영양모내는기계를 비롯하여 10여종의 농기계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보다 높일 수 있었음.
 - 또한 일꾼들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에 맞게 창안한 각종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짰음.
- 모내는기계, 깊은층비료주는기계를 비롯하여 많은 노동력과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영농공종의 시기성을 보장하는 데서 큰 몫을 할 수 있는 여러 종의 농기계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창안개조 하였음.

중시한 유기질복합비료 생산문제 - 순안구역 산양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1.21.)

○ 농업부문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비료가 많아야 함. 부족한 화학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지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함.

- 일반적으로 화학비료를 그대로 포전에 내면 농작물이 적은 양밖에 흡수하지 못하지만 유기질복합비료와 섞어 이용하였더니 그 효과성이 2배로 늘어났음.
 - 그 원인은 우선 유기질복합비료 속에 들어있는 후민산이 질소성분과 결합되어 비료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임. 또한 가용성부식산들과 가용성질소, 린, 칼리, 마그네시움은 물론 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유기질복합비료를 걸층이 아니라 깊은 층에 묻어주어 농작물이 영양원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렇게 농사를 진행한 결과 비료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목표이삭수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이삭당 평균알수가 종전보다 늘어났고 토양이 알덩이모양의 구조성토양으로 변화되어 뿌리발육에 좋았음.
- 이후 포전별로 유기질복합비료주는 양을 바로 정하여 많은 노동력과 비료를 낭비하지 않게 하였음.

- 일꾼들은 지난 시기 소출을 높인 경험에 기초하여 지력이 높은 포전과 낮은 포전에 널 유기질복합비료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날짜별 계획을 면밀히 세웠음.

그림 2 북한의 농사차비 전경(2)



자료: 로동신문. 2018.01.21.

사회주의농촌을 힘차게 지원(로동신문 2018.01.23.)

- 황해남도에서는 농촌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음.
 - 도급기관들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중소농기구를 확보하여 벽성군 서원협동농장, 청단군 갈산협동농장 등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해주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수만점의 중소농기구와 트랙터 부속품들을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웅진, 신천, 연안, 재령, 배천군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서도 내부에 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많은 비닐박막과 배양식분무기 등을 장만하였음.

농사 차비 성과 계속 확대 - 각지 농촌들에서 거름 생산 실적 80%계선 돌파 (로동신문 2018.01.24.)

- 평양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20~30톤 이상 널 목표 밑에 생산 및 실어내기 작업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음. 현재 도적인 거름 생산 실적은 80% 수준을 상회하였음.
 -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거름원천을 남김없이 찾아 이용하기 위한 힘찬 작업이 벌어지는 가운데 현재 도적으로 200여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이 생산되어 논밭에 실려 나가고 있음.

감자농사 차비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2018.01.24.)

- 삼지연 땅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거름 생산과 실어내기를 각각 1.5배, 1.3배로 늘렸음.

- 대홍단군에서도 열두 바닥파기, 휴보산비료 생산 등이 진해되고 있으며 감자수송대의 운전사들은 불리한 일기조건속에서도 하루실적을 120% 이상 끌어올리고 있음.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 생산경험 - 관심을 끄는 벼, 강냉이종자 처리 방법(로동신문 2018.01.24.)

- 종자 처리는 씨앗의 생리적 활성을 높여 발아율과 모선률을 높이고 여러가지 병충해를 미리막기 위한 중요한 영농기술공정임.
- 지난해 함흥시의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받아들인 종자 처리 방법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이 종자 처리 방법은 직류 전압을 이용하여 벼 종자 처리를 진행하며 부속품으로는 탄소 붕과 아연판이 이용됨.
 - 대체로 식물체에 아연 성분이 부족하면 여러가지 효소 활성이 억제되며, 물질 및 에네르기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줌. 결국 빛합성과 단백질합성과정의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뿌리를 통한 질소, 린, 카리비료의 흡수능력도 낮아지게 됨.
 - 아연은 또한 식물세포 안에서의 수분함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이것이 부족하면 농작물은 물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짐. 특히 가뭄을 타는 밭에 는 아연성분이 충분해야 강냉이 생육을 안전하게 담보하여 정보당 소출을 높일 수 있음.
- 지난해 전기처리 방법을 도입한 시안의 협동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크게 호평하고 있음.
 - 우선 종자의 활성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전기마당에서의 처리과정에 이온상태의 미량 원소들이 종자에 침투되어 생육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임. 더우기 종자 속에 침투된 아연 성분은 아옥신의 합성과정을 촉진시키고 질소, 린, 카리비료의 흡수능력도 높여 농작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음.
 - 지난해 이 방법을 도입한 룡진, 영광협동농장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논벼와 강냉이 생육 상태가 훨씬 개선되어 정보당 더 많은 소출을 냈음.

과일나무 가지자르기실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 -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로동신문 2018.01.24.)

- 각지 과수농장에서는 올해에 또 다시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현재까지 과일나무 가지 자르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로 증가하였음.
 - 룡진, 종산, 문동, 라하과수농장에서는 과일나무의 품종 특성과 생육 상태에 맞게 갱신가지숙음과 가지휘어주기를 기술적으로 하면서 가지자르기를 진행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 남포, 함흥과수농장을 비롯한 여러 과수농장들에서도 영농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실정에 맞게 작업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소농기구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가지자르기와 모양만들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 생산경험 - 효율적인 벼모판차단재 생산 방법
(로동신문 2018.01.27.)

- 벼모판 차단재 생산 방법이 도입되면서 모판의 보온과 영양조건이 개선되어 종전보다 싹트는 속도가 빨라지고 발아율도 높아졌음.
 - 모의 키가 더 커지고 잎수와 아지수도 늘어났으며 벼모마름병 발생률이 10%나 줄어들었음.
- 차단재 생산 과정에 벼선충들이 제거됨으로써 이 병으로 인하여 수확고가 감소되던 현상이 극복되었음.
 - 결국 작업반에서는 튼튼한 모를 길러내어 전해보다 정보당 0.8~1톤의 알곡을 증수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초과 수행할 수 있었음.
 - 농장일꾼들은 람조류 발효 퇴비 더미 위에 박막에 싹 차단재 덩어리를 올려놓게 하고 잘 덮여주어 발효 퇴비와 진거름영양벚겨가 동시에 발효되게 하였음. 이렇게 하면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질적으로 영양벚겨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음.

사회주의농촌을 힘차게 지원(로동신문 2018.02.01.)

단천시에서

- 단천시의 도시거름 생산에 펼쳐나선 기관, 공장, 기업소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더 많은 도시거름을 생산하였음.
 - 기관, 공장, 기업소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동원되어 하천바닥 흙을 파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음. 단천시 일꾼들은 하천들을 돌아보고 바닥 흙성분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미량원소들이 풍부히 포함된 1천여 톤의 흙을 파내어 흙보산비료 원료나 토양개량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운산군에서

- 운산군의 기관, 기업소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수백 톤의 도시거름을 더 생산하면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영농 물자확보사업을 힘차게 진행하였음. 또한 군에서 중소농기구전시회가 조직되었음.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간다 - 온성군에서(로동신문 2018.02.02.)

- 온성군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원료채취 작업을 진행하여 1월 초까지 1,000톤의 풍화탄과 수십 톤의 나무재, 소배설물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주원료 분쇄를 끝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밖에도 린회토 생산 목표를 지난 시기보다 1.5배나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1월 말현재 60%의 원료를 확보하였음.

소출을 높일 방도를 찾아쥐고 - 연산군 대평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2.02.)

- 연산군 대평협동농장에서는 새해 첫 전투로 모래기가 많은 논에 대한 흙갈이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농장에서는 올해 물이 부족한 논에 다수확 품종의 발벼를 심기로 하였음. 그렇게 하면 종전보다 정보당 소출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장원들에게 발벼 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 내용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음.

새해농사 차비 성과 확대(로동신문 2018.02.02.)

- 새해전투에 진입한 화대, 어랑군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도처에서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20만 톤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 거름을 생산하였음.
- 김책시, 경원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중소농기구와 농기계 준비를 하면서 활창대와 모판나래, 방풍나래를 비롯한 영농자재들을 집중적으로 장만하고 있음. 이밖에도 무산, 부령군 등의 농업근로자들도 중소농기구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음.

살균효과가 좋은 농약을 생산 - 사리원과수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8.02.05.)

- 농장에서는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최근 과일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그 면적을 늘릴 것을 계획하였음. 또한 이에 상응하는 비료와 농약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사리원과수농장에서는 류산동과 초산 등을 이용하여 탄저병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높은 농약을 만들어냈음. 자체로 만들어낸 이 농약은 장점이 많았음.
- 우선 살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음. 이 농약을 탄저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1주일에 2회 정도 사용하였더니 효과가 있었음. 또한 자체적으로 만들어 생산 원가가 적게 들었음.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과일증산의 돌파구를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로동신문 2018.02.05.)

-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수신평보의 호원에 흙갈이를 진행하였음, 20여일 동안에 1,200여 톤의 물거름을 운반하고 수백 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였음.
- 지난 1월 20일까지 2만여 톤의 흙을 날라 흙갈이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보다 수백 톤의 거름을 더 실어냈음.
 - 농약 생산을 위한 주원료들을 확보해놓은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여러가지 설비들을 창안제 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림 3 북한의 농사차비 전경(3)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



자료: 로동신문. 2018.02.06.

농업전선을 힘차게 지원 - 자강도에서(로동신문 2018.02.08.)

- 강계, 만포시와 전천, 성간군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균중적 운동으로 첫달 거름 생산 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시중군에서도 거름원천지를 탐색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1만여 톤의 니탄을 캐냈음.
 - 우시, 초산군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원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농사 차비작업로 끓는다 - 황주군에서(로동신문 2018.02.10.)

- 황주군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꾼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거름 생산 상황을 알아보고 논밭에 제때에 실어내게 하였음.
 - 또한 협동농장들에서 두벌 농사면적을 늘린 것에 맞춰 기후 풍토에 맞는 다수확 품종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양수동력설비들과 농기계수리 정비, 종자 처리제, 각종 농약 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작업을 진행하였음.

- 군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농업 생산에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살충 효과가 높은 농약과 시약을 생산하였음.

다수확의 담보로 틀어진 두가지 문제 - 안주시일꾼들의 사업에서(로동신문 2018.02.12.)

○ 안주시에서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유기질 비료 생산 실적을 올리고 수만 톤이나 더 포전에 실어내었음.

- 일꾼들은 지난해 농사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 다수확의 방도를 실정에 맞게 찾고 주인의식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절약은 생산이며 증산이다 -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2.18.)

○ 절약은 곧 생산이며 증산임.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영농사업이 주목됨.

- 농장의 토양 상태를 놓고 볼 때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음. 적은 양의 비료를 가지고도 효과성을 높여 알곡 생산을 늘릴 대책이 필요했음.
- 농장일꾼들은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이들은 농도가 약한 류산을 비료와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음.
 - 지난해의 농사 과정에서 피복처리한 비료는 처리하지 않은 비료보다 효과성이 높았고 종전보다 그 유실량이 훨씬 줄어들었음. 그것은 알비료를 피복하면 겉면에 미세한 얇은 막이 형성되면서 물속에서 천천히 풀렸기 때문이었음. 이로부터 논벼는 비료 성분을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음.
 - 알비료에 피복을 하여 이용한 이후로는 논에서 비료의 지속기일이 훨씬 더 늘어났음. 이것은 피복처리를 한 비료의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현실에서 성과를 내는 앞선 영농방법들(로동신문 2018.02.20.)

절약형의 벼강화재배 방법

- 다수확의 비결은 다수확 품종들이 생물학적 소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있음.
 - 벼강화재배 방법은 다수확 논벼 재배기술, 절약형 다수확 농법임. 안변군 천삼, 문천시 남창협동농장을 비롯한 강원도의 여러 농장들과 략량구역 남사, 송남협동농장, 중화군 관봉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벼강화재배 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정보당 10톤 이상의 높은 소출을 냈음.

높은 소출을 내는 강냉이여러포기 모아심기

- 최근 황해북도 안의 농장들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서는 강냉이를 구덩이 당 5대씩 심는 재배기술을 받아들여 강냉이농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일반 재배보다 정보당 1~2톤 이상의 소출을 더 내고 정보당 최고 15톤까지 높은 수확을 냈다고 함.
 - 이 기술은 중, 산간지대의 경사가 비교적 심한 비탈밭 또는 비경지, 가물고 척박한 밭들에도 도입할 수 있음. 곡산, 봉산, 증산, 시중, 신원, 용진, 북창군과 희천, 개천시를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실정에 맞게 여러포기 모아심기 재배 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높은 소출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함.

과수원 조성에 계속 큰 힘을 - 북청군에서(로동신문 2018.02.24.)

- 북청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수원 조성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리하여 몇 해만에 수천 정보의 청춘과원을 조성하였음.
 - 종산과수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많은 거름을 마련하고 생산된 거름을 적시에 포전에 실어냈음. 군안의 근로자들은 과일나무모 생산에도 큰 힘을 넣었음. 결과 새 과수원 조성에 필요한 과일나무모들을 원만히 확보하였음.

그림 4 북한의 농사차비 전경(4)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



자료: 로동신문. 2018.02.24.

논밭흙갈이를 힘차게 다그친다 - 동해지구 농촌들에서(로동신문 2018.03.03.)

- 농사 차비작업을 시작한 동해지구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논밭흙갈이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실적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음.

- 함주군에서는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필지별 토양 분석 자료를 놓고 흙갈이목표를 세운데 이어 작업하였음. 군에서는 원토장을 바로 정하고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포전에 흙갈이를 하였음.
- 함경북도의 농촌들에서도 흙갈이작업이 벌어졌음.
 - 회령시, 명천군, 화대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도의 하나를 지력을 높이는 것에서 찾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매일 흙갈이성과를 확대해나갔음.

주목되는 녹비작물묻는기계 - 사동구역 리현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3.06.)

- 녹비작물을 지력 개선에 이용하는 것도 유기농법의 한 형태임. 녹비작물을 유기질 비료로 이용하면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줌.
 - 녹비작물을 이용하여 지력을 높이자면 많은 품이 들며, 녹비작물을 베서 흙을 덮어 두둑을 짓는데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함. 그러므로 품이 많이 드는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은 농작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임.
 - 녹비작물묻는기계는 많은 품을 들여 녹비작물을 묻고 두둑을 만들던 여러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여 많은 노동력과 연유를 절약할 수 있게 함.

농사작전과 지휘를 과학적으로 -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로동신문 2018.03.08.)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농사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올해 알곡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었음.
 - 농경지가 많은 해안 연선의 시, 군들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 품종의 종자를 선택하고 이른큰모재배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시, 군의 농촌들에서는 모를 잘 기르기 위하여 활창대, 방풍나래 등 모판 자재 준비사업성과를 확대해나갔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도안의 저수지들에 물원천이 적은 조건에 맞추어 모든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여러가지 물절약형 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선행시키고 있음.
 - 특히 시, 군들에서 물원천을 확보하는데 큰 주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지난해 알비료성형기를 제작도입하여 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트랙터들에 대한 수리 정비를 짜고들어 논갈이를 비롯한 영농 작업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과 시, 군농기계작업소들에서 김매는기계와 탈곡기를 제작하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월 중순까지 도적으로 수백만 톤의 질 좋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포전들에 실어내고 활창대와 모판나래, 방풍나래 등 모판 자재 준비를 실속 있게 끝낸 도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 차비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농업전선을 힘차게 지원(로동신문 2018.03.11.)

-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농촌지원사업에 힘차게 펼쳐나 14종에 2,500여점의 중소농기구를 마련하여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이들은 애로와 난관을 해결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 1만 5,000m³의 토량과 수천 m³의 암반까기를 진행하여 봉천 - 청단구간의 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음.
 - 장연, 재령, 봉천군의 청년들이 협동벌들에 나가 돌격대활동으로 25만 8,000여 톤의 자급비료들을 생산하였음.

감자농사 차비에 역량을 집중 - 량강도에서(로동신문 2018.03.14.)

- 량강도에서 농기계들의 수리정비, 농기계부속품생산, 영농기술강습, 소농기구전시회, 부림소품평회 등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흥계수농장의 감자밭들을 규격 포전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었음. 짧은 기간에 룬환선 도로를 형성하고 언땅을 까면서 2만 2천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바람막이숲을 조성하였으며 포전 도로도 건설하였음.
 - 소백산농장을 비롯한 모든 농장들에도 규격 포전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음.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달구지와 분무기를 비롯하여 수만점의 중소농기구들을 농장들에 보내주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

씨뿌리기 준비를 실속 있게(로동신문 2018.03.14.)

-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벼모판 씨뿌리기 준비를 착실히 잘해 나가고 있음.
 - 농장의 일꾼들은 씨뿌리기에 지장이 없이 농사 차비를 끝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 특히 벼강화재배를 위한 모판 씨뿌리기 준비에 각별히 주목하였음. 그리하여 농장의 모든 작업반과 분조들에서는 씨를 뿌릴 수 있게끔 질 좋은 부식토를 비롯하여 씨뿌리기에 필요한 자재와 농기구를 준비해 놓았음.

모판 재료질보장에 모를 박고 - 평원군 대암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3.14.)

- 평원군 대암협동농장 작업반들에서는 지난해 큰모재배 방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판 재료준비를 착실히 하였음.

- 지난해 닭배설물을 다른 재료들과 섞어 모판 밑에 깔아주고 복토 재료로 이용하였고 그전 보다 모를 더 튼튼하게 키워낼 수 있었음. 일꾼들은 닭배설물을 비롯한 모판 재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음.
- 또한 일꾼들은 작업반들에 나가 모판 재료준비를 질적으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기술 지도를 짜고들었음. 일꾼들은 작업반장들과의 연계하여 흙보산비료를 기일 안에 생산하였음.

논밭갈이에서 련일 혁신 -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로동신문 2018.03.15.)

- 황해남도의 협동벌들이 논밭갈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재령군의 일꾼들은 많은 부속품들을 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음. 송화군, 삼천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논밭갈이를 진행하고 있음.
 - 용진군, 태탄군에서 부림소관리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논밭갈이실적을 올리고 있음. 은 룡군, 벽성군, 신원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논밭갈이에 박차를 가 하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씨뿌림량을 줄여 얻은 알곡증산예비 - 대동군 원천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3.15.)

-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됨.
 - 대동군은 지난 년도의 봄철기상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종합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씨뿌리기에서부터 올해농사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음.
 - 특히 벼모판에서의 평당 씨뿌림량을 종전보다 일정한 정도로 줄이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렸음. 이렇게 하면 모판에서의 포기당 영양면적이 그만큼 늘어나 벼모들의 기준 징표를 일정한 시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음.

의의있게 조직한 중소농기구전시회 - 천리마구역인민위원회 초급당위원회에서 (로동신문 2018.03.18.)

- 지난 2월에 열린 중소농기구전시회는 일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음. 인민위원회일꾼들은 농장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전시품들을 보았음.
 - 인민위원회책임일꾼들을 비롯한 일꾼들이 어느 한 협동농장의 부림소들을 한마리씩 맡아 영양관리를 잘해 주도록 하고 구역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자급비료를 알심있게 생산하도록 조직사업을 만들었음.

모판 준비를 착실히 - 흥원군 봉화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3.18.)

- 흥원군 봉화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모판 준비에 주력하고 있음.

- 농장일꾼들은 한개 작업반씩 당면한 영농 작업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행하였음.
- 분조장들은 농장원들에게 모판 준비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농장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음. 농장원들은 바람막이바자치기와 두둑짓기 등을 한 공정씩 수행하고 있음.

과학농사와 일꾼의 전개력 - 운전군 청정협동농장에서(로동신문 2018.03.18.)

- 운전군 청정협동농장 일꾼들이 과학농사를 관철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일꾼들은 올해에 모든 작업반들에서 효능높은 식물활성강화제를 받아들여 모판 단계에서부터 튼튼한 모를 키우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고 짧은 기간에 수 톤의 효능높은 식물활성강화제를 확보하였음.

당면한 영농 작업에 역량을 집중 - 고풍군에서(로동신문 2018.03.20.)

- 고풍군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영농 작업에 계속 주력하고 있음.
 - 일꾼들은 흥주닭공장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많은 닭배설물을 확보하여 농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농사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해에 기여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려는 대중의 드높은 열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 방법론 있게 내밀었음.
 - 특히 군에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에 여러가지 영농물자를 보내준데 이어 일꾼들이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영농 공정에 따르는 농사일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을 소유하도록 적극 격려하였음.

벼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었다 - 황해남도에서(로동신문 2018.03.21.)

- 황해남도에서 벼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되었음. 도의 일꾼들은 모든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벼모판 씨뿌리기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3월 18일 해주시 신광협동농장과 재령군 래림협동농장에서 벼모판 씨뿌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음.
 - 재령벌의 농촌들에서 벼모판 씨뿌리기를 실속 있게 하고 있음. 신천군, 재령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질 좋은 부식토와 모판 자재들을 착실히 마련해놓고 씨뿌리기에 들어갔음. 이곳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종자의 싹틔우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하는 것과 함께 모판만들기를 앞세우면서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 있음.

- 은률군, 태탄군, 송화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농촌들에서도 종자 처리를 앞세우면서 벼모판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임업

산지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로동신문 2018.01.08.)

- 함경남도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을 매일 평균 200% 이상 수행하고 있음.
 - 장진, 도안림산사업소들에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게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 부속품들을 보장하며 노동력 조직을 만들고 합리적인 운반수단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판교, 안변림산사업소를 비롯한 강원도림업관리국의 노동자들은 임지를 바로 선정하고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를 잘하여 매일 생산 실적을 계획보다 1.5배 이상으로 올리고 있음.
 - 평안남도림업관리국 산하 갯목생산사업소들의 노동계급이 증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생산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전투에 진입한 신앙, 대흥, 념원갯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엄격한 계획규율을 세우고 공정간 맞물림을 빈틈없이 조직하여 매일 계획보다 수십㎡의 동발나무를 더 생산하고 있음.

첫달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 빛나게 완수(로동신문 2018.01.15.)

- 연합기업소참모부 일꾼들은 모든 사업소들에서 자력자강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이용하여 많은 부속품들과 공구들을 립산사업소에 공급하였음.
 - 로탄청년립산사업소 사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나무베기와 모이기, 사이나르기 등 모든 작업 공정에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통나무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갔음.

1월 통나무 생산 계획 완수 - 립업성아래 각지 생산단위들에서(로동신문 2018.01.20.)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5일까지 성적으로 10여 개의 립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들이 1월 통나무 생산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음.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였음.
 - 화평림산사업소, 삼락갯목생산사업소의 노동계급도 겨울철 생산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연유를 적게 쓰는 운재 방법들을 활용하여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 평안북도림업관리국아래 벽동림산사업소, 운산산림개조사사업소,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천내, 통천갯목생산사업소, 안변림산사업소의 노동계급도 매일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갱목생산 1.2배 이상 장성 - 량강도림업관리국아래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로동신문 2018.02.05.)

- 도림업관리국아래 백암, 연암갱목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갱목생산을 1.2배 이상 끌어올렸음.
 - 백암갱목생산사업소 신전청년, 도내작업소의 노동계급이 나무베기와 아지따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여 하루계획을 최고 200% 이상 수행하였음.
 - 연암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엄격한 계획규율을 세우고 공정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1월 갱목생산 계획을 초과완수하였음.
 - 굴송청년, 소박천작업소의 생산자들은 채벌장조건에 맞게 통쏘이길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이용률을 높였으며, 트랙터운전수들은 경사가 급한 산지도로의 특성에 맞게 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매일 통나무 수송 실적을 2배로 끌어 올렸음.

년간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 앞당겨 완수 - 도안림산사업소에서(로동신문 2018.02.22.)

- 산수작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기계톱의 이용률을 높여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통쏘이와 소발구에 의한 사이나르기를 힘차게 벌려 매일 산지통나무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 평산작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음. 광대작업반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통쏘이에 의한 사이나르기의 비중을 높여 나무터들에 많은 통나무를 쌓아놓았음.

수억그루의 나무모를 더 생산 - 산림부문에서(로동신문 2018.02.28.)

- 평양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봄철나무모 생산 계획을 116%로 넘쳐 수행하였음.
 - 순안, 형제산구역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은 거름 생산과 기질 보장을 선행시키고 용기모에 의한 생산을 비롯한 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잣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 실적을 1.2배 이상 끌어올렸음.
 - 신포시, 리원, 정평군의 근로자들은 팽화질석을 이용한 영양단지와 수지용기에 의한 나무모 생산 방법 등을 받아들이고 병충해 방지대책을 세워 튼튼한 나무모들을 생산해냈음.
 - 송화, 연탄군을 비롯한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 라선시의 양묘장들에서도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나무모들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는 생산 방법을 적용하여 실적을 올렸음.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 문덕군에서(로동신문 2018.03.02.)

- 문덕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식수절을 계기로 많은 나무를 심었음.

-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모운반에 품을 들이면서 뿌리 주위를 진흙으로 감싸고 부식토를 충분히 넣은 구덩이들에 나무모를 정성껏 심었음.

년간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 완수(로동신문 2018.03.04.)

- 량강도림업관리국과 121호림업연합기업소 안의 15개 작업소들에서 2월 말까지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냈음.
 - 백암개목생산사업소 합수작업소와 갑산림산사업소 양흥작업소, 송암작업소들에서는 수십km의 생산도로를 새로 내어 통나무 생산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대용연료차의 가동률을 높이었음.
 - 생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한 백자림산사업소, 삼수림산사업소, 룡하림산사업소의 여러 작업소들에서 노동력과 설비, 운전기재들을 집중하고 하루 생산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음.

산지통나무 생산 계획 앞당겨 완수 - 임업 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로동신문 2018.03.07.)

- 임업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는 유리한 생산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통쏘이와 소발구에 의한 사이나르기를 힘차게 내밀어 매일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렸음.
- 자강도림업관리국 산하 여러 사업소들에서 증산작업을 힘차게 진행하였음.
 - 삼락, 강계개목생산사업소, 성간림산사업소에서는 나무베기, 아지따기, 모으기를 비롯한 생산 공경간 맞물림을 짜고 들면서 집단적으로 경쟁하면서 세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음.
 - 희천, 양계, 동신개목생산사업소에서는 지형조건에 맞는 나무베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보장하여 일정 계획을 110% 이상 수행하였음.

봄철나무심기 진행(로동신문 2018.03.16.)

- 각지 농근맹조직들에서 봄철나무심기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음.
 -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 것에 대한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농근맹일꾼들과 농근맹원들은 최근 10여일 동안 잣나무와 스트로브스소나무,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십 종에 1,2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가 있었음.
 - 평양시농근맹위원회 일꾼들과 농근맹원들은 시안의 여러곳에 10여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었음. 황해북도의 농근맹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지대적 특성과 토양 성분에 맞게 150여만 그루의 나무들을 심었음.

◆ 기타 작물

온실 남새와 버섯 생산에 큰 힘을(로동신문 2018.02.05.)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수십 톤에 달하는 질 좋은 유기질 거름을 호동마다 내고, 남새들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공정별 비배 관리를 잘하여 많은 배추와 시금치, 파 등을 생산하였음.
- 정방산버섯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버섯 재배 블록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흰곤봉, 느타리버섯 생산을 늘렸음.
- 송림시 신성협동농장, 연탄군 문화협동농장,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들에서도 자체로 중균생산기지를 꾸리고 생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실하게 키운 버섯들을 농장원들에게 공급하였음.

3 농업 기반 및 농자재

◆ 농업 기반 정비

물확보사업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2018.02.28.)

연안군에서

- 군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천태, 발산리를 비롯한 군안의 여러 물길가시기 작업장에서 작업하였음. 한달 동안에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며 바닥파기를 진행하여 10여km구간의 물길을 확장하고 물 통과 능력을 훨씬 높였음.
- 군일꾼들은 또한 메달 생산과 양수 철관 교체에 필요한 수십 톤의 철판을 비롯하여 양수 설비수리 정비에 쓸 많은 자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음.

염주군에서

- 군에서는 반곡협동농장과 주의협동농장, 룡북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염피해지 및 물부족지역에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근 10리 구간의 새 물길 건설과 물길확장공사목표를 높이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였음.

◆ 농자재 및 농기계

주체비료증산의 동음 높이 올리리(로동신문 2018.01.04.)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난해 주체비료 생산 공정대보수 및 능력 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시비년도 비료 생산에 진입한 성과에 토대하여 국가경제 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도 작업을 진행하겠음.

일터에 넘치는 불같은 지향 - 북청과수기계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로동신문 2018.01.15.)

- 북청과수기계공장에서는 과수기계 생산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자재들이 마련 되고 설비점검 및 보수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었음.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8.02.04.)

-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겨울철에 석탄이 얼어붙을 때마다 이곳 노동계급은 석탄을 녹이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다음 공정에 원료를 지장 없이 보내주고 있음.
 - 암모니아작장의 노동자들은 공정 관리, 기술 관리를 진행하여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암모니아의 생산 성과 실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음.

린비료 생산에 힘을 넣어 - 채취공업부문에서(로동신문 2018.02.04.)

- 정주미량원소과린산석회비료공장에서는 농업전선에 더 많은 린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비료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만들고 현존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산 방법들을 받아들여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농기계부속품과 영농자재생산 추진 - 기계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로동신문 2018.02.18.)

- 기계공업성 아래 여러 공장의 노동계급은 상반기 전선류 생산 계획이 앞당겨 완수하고 1.4분기 절연물 생산 계획도 넘쳐 수행하였음. 각종 트랙터 부속품 생산은 1월에 이어 이달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
 -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하여 부족한 자재들을 마련하고 농촌에 보내줄 1.4분기 절연칠감생산 계획을 1월 중에 앞당겨 끝냈음. 지속적으로 1.4분기 지표별 절연물 생산 계획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비료 생산 성과 계속 확대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8.02.22.)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참모부에서는 지난해 방대한 설비의 집중보수를 진행하여 공정을 연계하고 공정 운영을 과학화하여 년 초부터 비료 생산이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하여 자체의 기술로 꾸려놓은 암모니아 합성 촉매 재생 공정과 탄산가스 정밀 탈류 촉매 생산 공정, 물 정제용 이온 교환 수지 재생 공정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그림 6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8.03.07.

만경대구역 농장들에서 농기계수리 정비 완료, 출동식 진행(로동신문 2018.03.07.)

-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만경대, 칠골, 봉수남새전문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농촌기계화 작업 인원은 부족한 설비, 자재 등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짧은 기간에 150여종에 9만 6,000여점의 예비부속품과 수습종에 1만 3,000여점의 각종 공구들, 영농 공중벌에 따르는 100여대의 중소 농기계들을 마련하였음.
 - 구역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발휘하며 알비료성형기, 송풍식분무기, 동력제초기 등 수습대의 농기계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있었음.
 - 구역농기계제작업소의 노동계급은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창안제작하였으며 모든 기계 수단들이 만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을 빈틈없이 완료하였음.

벼종자영양피복제생산 성과 확대 -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로동신문 2018.03.14.)

- 종자를 피복하면 어린 시기부터 농작물의 초기 영양이 강화되어 병해충에 견디는 힘이 세지고 모의 생육을 좋게 하여 소출을 높이며 종자와 농약을 절약할 수 있음.

- 과학자들이 벼종자영양피복제를 시험적으로 이용해 본 결과 피복을 하지 않은 종자에 비하여 싹트기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벚모의 초기 영양 상태가 좋았다고 함.
- 연구사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제품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나갔음. 이들은 원료의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배합 비율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생산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였음.

강냉이종자피복제생산전투 결속 - 평원농약공장에서(로동신문 2018.03.19.)

- 이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하루 계획량의 1.5배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며 3월 17일 현재 수십 톤의 땅속 해충 구제용 강냉이종자피복제 생산 과제를 기한 전에 수행하였음.

그림 7 평원농약공장의 공장 내부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8.03.19.

축매를 국내원료로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8.03.23.)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가지 축매들을 우리의 원료로 생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주체비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 있음.
- 이 과정에 기업소 소속 연구사는 지난 시기에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던 축매를 여러번 재생하여 쓸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여 나라에 적지 않은 이익을 주었음.
- 이밖에도 축매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축매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 능력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4 기타 동향

백두대지에 올려가는 전력증산의 동음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서(로동신문 2018.01.0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에서는 새해에 들어 매일 높이 세운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발전소에서는 전력 생산에서 만든 성과와 경험을 살려 새해에도 발전 설비들을 정비보강 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웠음.
 -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전력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로동신문 2018.01.07.)

- 올해 전력, 금속, 화학,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경공업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작업 목표는 매우 높으며 애로와 난관도 많을 수 있음.
 - 경제토대가 최대로 성과를 내도록 하려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향상 시킬 수 있음.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제 전선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여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석탄 생산에서 연일 혁신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로동신문 2018.01.10.)

- 연합기업소와 각 탄광들의 일꾼들은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나라의 석탄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채탄에 역량을 집중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있게 하여 석탄 생산을 늘려 나가고 있음.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일꾼들과 기술자, 탄부들도 힘차게 노력하여 석탄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수백만kWh의 전력을 증산 - 순천화력발전소에서(로동신문 2018.01.1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에서는 새해에 들어 10일 간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하여 수백만kWh의 전력을 증산하였음.
 - 발전소에서는 모든 기기에 대한 정비보수를 진행하고 발전 설비의 출력을 최대한 높이고 있음.
 -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발전기에 의한 고압전동기 연기동 방법을 급수 계통에도 확대도입하여 용량이 큰 전동기들의 고장 현상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하였음.

소금 생산성과 계속 확대 - 원산제염소에서(로동신문 2018.03.16.)

- 강원도의 일꾼들은 소금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시, 군 소금 생산작업반별 총화평가사업을 실속 있게 하는 한편 현지에 있는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해 주었음.
 - 이들은 2월 초에 소금 생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 군별로 설비 및 공구전시회를 통이 크게 조직하였음. 그 결과 일꾼들과 소금 생산자들은 첫 소금꽃을 피웠음.
 - 안변군기초식품공장의 소금생산작업반에서는 증발지들과 결정지들에서의 물 조절과 면 고르기 등 소금발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여 소금 생산을 늘리고 있음.
 - 천내리시멘트공장의 소금 생산작업반에서는 제염공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자체의 힘으로 유리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소금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금강군을 비롯한 시, 군 소금 생산작업반에서도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소금 생산에서 날마다 실적을 거두고 있음.

소금 생산 시작(로동신문 2018.02.18.)

- 동해안의 제염소들에서 소금 생산이 시작되었음.
 - 광명성제염소 제염1, 3, 7직장의 노동계급이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증발지와 결정지, 물 길에 대한 몰려 다짐과 면 고르기를 비롯한 모든 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하였음.
 - 원산제염소의 소금 생산자들도 동해안지대의 특성에 맞는 찌물얼굴법과 예비저수지에서의 염도높이기 등 앞선 소금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첫 소금을 생산하였음.

전력증산의 동음 높이 올려간다 - 서두수발전소에서(로동신문 2018.02.20.)

- 일꾼들은 지난 시기에 비해 물량이 적은 불리한 조건에 맞게 저수지들의 물 수위와 유입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출력 분배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1호, 3호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발전기들의 보수기일을 단축하고 발전 설비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며 전력 생산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특히 3호발전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발전기들의 보수(補修) 체계를 정확히 세워놓고 발전기 보수를 기일 내에 진행하여 많은 전력을 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기기계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 설비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적시에 생산 보장하고 있음.

우리 식의 흙경화제 개발(로동신문 2018.03.22.)

- 일반적으로 흙경화제는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자연 상태의 흙을 이용하여 도로나 공공건물, 소층살림집 등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재료로서 첨단재료, 미래의 녹색 건재로 주목받고 있음.
 - 도입한 단위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 과학자들이 개발한 흙경화제를 흙에 섞어 시멘트, 모래, 자갈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흙 블록을 생산하여 건물 건설에 이용한 결과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고 함.

국내매체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경제일반

◆ 경제일반

청와대, "김정은의 신년사 환영, 평창올림픽 성공은 한반도·세계 평화 기여할 것"

○ 청와대는 1월 1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참가시킬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음.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였음.

- 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어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왔다"고 설명하였음.

• 그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는 위치에 앉아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2018.01.01. 청와대 "김정은 신년사 환영...평창올림픽 성공은 한반도·세계 평화 기여"

통일부, 2018년도 김정은 신년사 평가

○ 통일부는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핵무력 완성' 성과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하여 경제분야 전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남관계에서 출로를 모색했다"고 평가하였음.

- 통일부는 이날 '2018년 북한 신년사 평가' 자료를 통해 북한이 "새해가 남북 모두에 의의 있는 해임을 지적하며,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렇게 분석하였음.
 -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신년사의 시간과 형식면에서는 예년과 비슷했지만 대남 부문 분량이 증가하고 대외 부문은 축소되었음. 구체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대남 관련 분량 비중이 17%에서 22%로 증가하였음.
- 통일부는 반면 "대외관계는 전년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 없이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했다"고 평가하였음.
- 통일부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 용어를 사용하고 '핵 선제 불사용', '불 위협'을 언급했다"며 "미국에 대하여 예년처럼 '적대시 정책 폐기' 등 요구 없이 대미 억제력 확보 과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석하였음.
 -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추가 도발을 시사하지 않고 있지만 핵능력 고도화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부분과 관련해서 "대내 경제 측면에서는 정권수립 70주년, 주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으나 새로운 사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음.

뉴스1. 2018.01.01, 통일부 "北 대남 관계서 출로모색...美엔 '억제력' 과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북 고위급회담 제의

- 조명균 장관은 "평창올림픽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접촉을 하자"라고 북한에 제의하였음.
 - 김정은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남북회담 희망 일시·장소는 1월 9일 판문점이라고 밝혔음.

뉴스1. 2018.01.02, 정부, 9일 남북 당국 회담 긴급 제의

북한,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 수락

- 1월 5일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측이 제의한 판문점 평화의집 고위급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음.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이 오전 10시 16분 경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통문을 보내왔다"면서 이렇게 전하였음.
 - 그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고위급 회담을 위하여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 그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며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음.
- 백 대변인은 "전통문 명이는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2018.01.05, 北, '9일 고위급회담' 제안 수락... "평창·남북관계 개선 논의"

청와대의 남북 실무회담 합의에 대한 평가

- 청와대는 1월 18일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는 동시에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겠나"라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음.
- 이 관계자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선수 선발의 공정성이나 경기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본다"면서 논란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매일경제, 2018.01.18, 청와대 "남북 실무회담 합의, 양측 최선을 다한 결과"

북한의 개성공단 운영 가능성 제기

-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의류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전언을 인용하여 1월 30일 보도하였음.
- 아시아프레스는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의류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였음. 이 취재원들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아무런 상표나 로고가 없고 '공단 제품'이라고 불리며 판매되고 있으며, 기관이나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신흥 부유층에게 넘겨져 지방 도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제품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질이 좋아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하였음.
- 아시아프레스는 또 개성공단 사정을 잘 아는 유통업자를 인용해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재봉사는 하루에 북한 돈 1만 6,000원, 다림질하는 인력은 북한 돈 1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유통업자는 "일을 많이 하고, 실적이 좋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돼 한 달에 약 5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있다"며 "중국 돈으로 평균 200~350위안(한화 3만3000원~6만원) 정도의 임금"이라고 하였음.

조선일보, 2018.01.30, RFA "北, 개성공단서 의류 생산해 유통"

북한, 과학기술로 '자립 경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자립경제' 건설을 주창하며 경제현장에 과학기술 역량을 활발히 투입하는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은은 2017년 10월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자력생산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기본 열쇠'로 내세웠고 올해 첫 현지시찰 대상으로도 국가과학원을 선택한 바 있음.

- 이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자들의 '역량'으로 핵심 산업현장의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김정수 부위원장은 지난달 6일 노동신문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게 된다"고 밝혔음.
- 위원회의 조세권 국장은 같은 기사에서 "국가적 의의가 크고 현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 나가겠다"고 전하였음.
- '2월 17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는 각지의 공장과 기업소 등에서 신기술 연구와 기술 혁신 방안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자 조직으로, 1970년대 활동을 시작하였음.

- 노동신문은 이달 12일 '과학자·기술자 돌격대 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싣고 이 조직의 분발을 독려하기도 하였음.

연합뉴스, 2018.02.17, 北, 제재속 과학기술로 '자립 경제' 돌파구 찾기 안간힘

북한, 대북 제재에 따른 휘발유, 디젤유 가격 상승

○ RFA는 일본 아시아프레스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2월 중순 기준으로 북한 북부지방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1kg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1만 8,225원, 디젤유 1kg은 1만 800원을 기록했다고 전하였음.

- 2월 가격은 가격은 지난 1월 초보다는 떨어졌지만, 지난해 12월보다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2017년 12월 당시 휘발유 1kg 1만 6,000원, 디젤유 1kg 6,765원) 한국, 일본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설명하였음.

- 북한 연료 값의 폭등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북한 당국이 원유의 수입 감소를 우려해 유통을 통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당국이 유통을 통제하자 연료 장사꾼들이 판매 조절에 나섰고, 이것이 곧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됨.
 - 북한에서 연료 값이 오르기 시작한 때는 2017년 4월 말부터로 휘발유와 디젤유값이 2배 가까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2018년 1월에는 2017년 12월보다 갑자기 60%가량 급등하면서 대북제재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2017년 12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의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1월부터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했다고 밝혔음.

뉴스1. 2018.02.18, "대북제재 탓, 北 연료비 여전히 비싸...군대도 타격"-RFA

통일부, 북측 해외 노동자 및 무역 감소 등으로 북한 경기에 영향 미칠 것으로 판단

○ 통일부는 북측의 해외 노동자, 무역 감소 등으로 향후 북한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2월 22일 밝혔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측의 기름값, 환율 등 동향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제재국면은 2016년부터 계속돼 왔고, 유가 등은 변동폭이 있지만 다른 물가, 환율은 현재 (북측)시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해외 노동자, 무역 감소 등 이런 부분은 향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하였음.
- 또 민간 교류관련 질문에 "현재 대북 접촉신고는 252건이 접수돼 사회문화 분야가 154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 42건, 체육 24건, 종교 20건 등이다"라며 "남북 간의 유의미한 교류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음.

파이낸셜 뉴스, 2018.02.22, 통일부 "북측 해외 노동자, 무역감소 등 향후 경기 영향 미칠 듯".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제재회피 수단 감시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관련 선박 28척, 기업 27곳,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하였음.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발표하였음.
-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재무부는 전세계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선박과 해운사, 기관들을 차단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포함해 제재 회피를 위하여 북한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불법적 수단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인 지난달 24일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제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나온 단독 제재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이고 2018년 들어 두 번째임.

연합뉴스, 2018.02.24, 미 "제재회피 모든 불법수단 겨냥"...선박 28척·기업 27곳 제재

남북-북미 대화 진행 가능성 증대 전망

-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 정부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이용해 3차 남북정상회담 요건인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북-대미 라인을 가동하였음.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조명균 통일부 장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이산가족상봉, 남북군사회담 등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가름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임.
 - 또 우리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우군으로 확보해 향후 한미공조 등의 한 축으로 한반도 정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조선일보, 2018.02.26, 南北-北美대화 탄력받나. 대북·대미라인 김영철 잇단 회동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별사절단 구성 및 3월 5일 북한 파견 결정

-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 구성을 확정하였음.
 - 청와대는 "사절단은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청와대는 3월 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5일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며 "특사단 방북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라고 밝혔음.

매일경제, 2018.03.04, 문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5일 파견...수석 정의용

정의용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의 대북 파견 결과 발표

- 정의용 수석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정의용 수석은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하여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음.

- 그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했다"고 말하였음.
중앙일보, 2018.03.06, 정의용 "4월 말 판문점서 3차 남북정상회담...北, 미국과 비핵화 대화 가능"(대북특사 결과 발표)

남북정상회담의 3대 회담 의제는 비핵화·이산상봉·경제협력으로 예상

-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임.
 -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필수적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 역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임.
 - 반면, 일각에선 비핵화 문제는 결국 북미접촉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음.
- 뉴스1. 2018.03.07, 남북정상회담서 다뤄질 3대의제...비핵화·이산상봉·경제협력

북한자원연구소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 추진 방안 보고서 발표

- 남북 협력사업으로 북한의 주요 광산에 대하여 현대화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에서 연간 9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북한자원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음.
-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작성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 추진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고 3월 18일 밝혔음.
 - 연구소는 북한 지역의 700여 개 광산 가운데 현재 개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주요 광산 74곳에 대하여 남북 협력 현대화·공동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음.
 - 이 경우 남북한에서 연간 9만 1,310명, 남한에서만 연간 1만 8,5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연구소는 밝혔음.
 - 연구소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석탄·철광석·금 등 11개 광종에 대하여 북한 광산의 현대화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면 현재 2.8%인 남한의 자급률이 사업 완료 후에는 남북한 통합 수요를 기준으로 40.3%까지 상승할 것으로도 예상하였음.
 - 특히 남한에서 현 자급률이 4.9%인 금의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통해 남북한 통합 자급률이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전망하였음.

연합뉴스, 2018.03.18, "北주요광산 남북 공동개발 시 연간 9만명 일자리 창출가능"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 예정

○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이 3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릴 예정이다.

- 통일부는 3월 24일 "북측은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지난 3월 22일 우리측이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하여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나머지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추후 판문점 채널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음.

연합뉴스, 2018.03.24, 남북, 29일 판문점서 고위급회담 개최...정상회담 준비(종합)

2018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예정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이후 10년 6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임.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은 29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4월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3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음.

한겨레, 2018.03.29, 남북 정상, 내달 27일 만난다.

◆ 대외무역

중국·러시아 기업, 북한에 석유정제품 밀반출

○ 중국과 러시아 기업은 국제사회 눈을 피해 해상에서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였음.

- 요미우리는 1월 1일 입수한 계약 문서와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 기업이 러시아 기업의 대북 석유 정제품 밀수를 도와주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음.
 - 중러 대북 밀수망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큰 구멍'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음.
- 요미우리에 따르면, 중·러 기업이 관여한 밀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석유 정제품 수출에 처음으로 제한을 가한 2017년 9월에 3개월 앞선 6월 시작되었음.

- 중국 기업은 북한이 러시아산 석유 정제품을 해상에서 받을 대형 선박을 제공하거나 대금 결제를 중개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은 중국 정부가 2017년 4월부터 대북 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자 밀수를 계획하였음.
 - 북한은 당초 러시아 기업에 직접 거래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은 금융제재 탓에 북한으로의 송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함.
 -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소재 무역회사가 중개에 나선 것은 그 이후라고 신문은 설명하였음.
 - 북한 관계 소식통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훗카 등지에서 반출한 경유를 중국 기업이 제공한 선박으로 옮기고, 이후 북한 청진·홍남 등으로 반입하는 밀수 방식이 이용됐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2018.01.01, "중·러 기업, 北에 석유정제품 밀수 '문서'로 확인"

북한의 대몽골 담배 수입 증가

○ 2017년 북한이 몽골로부터 담배를 수입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코트라가 1월 6일 밝혔음.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이 작성한 '몽골-북한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양국 간 총 교역규모는 229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음.

- 특히 몽골의 대북한 수출액이 19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것이 총 교역규모가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음.
- 몽골의 대북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192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2.1% 증가한 37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무역관은 "몽골의 대북 수출품목 1위는 담배인데 금액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92.2%를 차지했고 2016년에도 담배가 수출 1위였다"며 "담배 수출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현지 담배 제조사로부터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 이어 "2017년 11월 기준 몽골의 대북 수입 1위 품목은 의약품으로 전체 수입액의 78%를 차지했다"며 "수입 1위 품목인 의약품은 북한의 금당-2 주사액으로 현지 의약품 수입유통업체들이 수입하여 약국을 통해 판매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01.06, 北, 작년 몽골서 담배 수입 급증...양국 교역규모 최대

중국 해관, 철강-금속 대북 수출 금지 시행

○ 북중 화물이 오가는 단둥~신의주 간 중조우의교(단둥철교)가 1월 8일부터 개통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대북 철강·금속 등의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

- 평소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실은 트럭 100여 대가 대기한다는 해관 내에는 이날 이른 오전 시간이긴 했지만 30여 대의 트럭만 보여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음. 단둥 해관 측은 5

일 밤늦게까지 철강 등의 대북 수출 금지, 북한산 농산물 등의 수입 금지 등 중국 상무부 발표 조치의 전면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해관에서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기하는 3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 모습도 포착되었음. 현지 중국인은 "단동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보인다"고 말하였음. 중국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및 비자 연장을 금지하면서 단동의 북한 근로자 규모가 2만여 명 수준에서 1만 5,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추정도 나왔음.
- 1월 6일부터 중국 당국이 단동 등 북-중 접경지역 일대 부두들에 대한 일제 순찰에 나서 북한산 수산물 밀수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하였음. 2017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압록강에서 잡은 수산물 밑에 북한산 냉동 수산물을 들여오는 밀수가 성행하였음. 중국 당국이 5일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 맞춰 여기에도 칼을 들이던 것임.

동아일보, 2018.01.11, "북에 못 하나도 못 들어가요"... 中, 철강-금속 대북수출 금지 시행

북한, 2017년 2억 달러 상당의 금수 품목 수출

○ 북한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석탄을 비롯한 금수 품목을 수출하여 약 2억 달러(약 2,173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로이터통신이 1월 2일(현지시간)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음.

- 로이터통신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석탄을 원산지를 중국이나 러시아로 속여 선박을 통해 운반했다면서 이같이 전하였음.
- 로이터통신이 전한 석탄 경유 또는 도착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물론 한국도 포함되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시리아와 미얀마와 탄도미사일 품목을 포함한 무기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였음.
 - 한 유엔 회원국은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다중 로켓 발사기와 지대공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전받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유엔에 보고하였음.

연합뉴스, 2018.02.03, 북, 시리아·미얀마에 무기수출...작년 2천억원 금수품목 수출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대북제재 효과로 추정

○ 북한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 폭을 늘린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효과 때문으로 해석됨.

-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2017년 대중 무역에서 1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음.

- 이 기간 중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수입액은 33억 달러였으며, 수출액은 16억 달러였음.
수입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수출은 2013년 당시의 30억 달러에 비해 급감하였음.
세계일보, 2018.02.22, 북한, 대중 무역적자 확대... "대북제재 효과인 듯"

북한의 석탄 수출 감소 및 식량 생산 감소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며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2017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액이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4억 달러로 2016년(11억 8,000만 달러)의 약 3분의 1에 그쳤으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도 37.3% 줄었음.
 - KDI에 따르면, 북한 대외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액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특히 2017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율이 69.7%에 달하였음.
- 북한의 산업활동과 농업생산 역시 대외교역 위축과 침체 조짐을 보였음.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전년보다 2% 감소한 471만톤으로 추정하였음.
한국경제, 2018.02.28, 북한 '돈줄' 석탄 수출 66% 줄어

북한의 화물운수업체, 북중 무역 감소로 인한 경영난 심화

- 국제사회와 중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 중국을 이어주는 화물 운송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월 1일 보도하였음.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일감이 크게 줄어든 북한 화물회사들이 중국의 대북 무역회사를 상대로 운임인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2월 27일 "빈 차 운행을 못하게 되어있는 북한 화물차들이 요즘엔 하루 평균 20대 이상 빈 차로 중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화물차의 공차율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RFA에 말하였음.
- 뉴스1. 2018.03.01, "北화물운수업체들, 북·중무역 급감으로 경영난"-RFA

원산지 '세탁' 이후 북한산 석탄의 제3국 수출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3월 3일 보도하였음.
 -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무역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자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외국에 수출한 사례는 이전에도 다수 적발된 적이 있음.
 -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유엔 조사단 등 관계자들을 인용, "2017년 8~9월 기간 적어도 4척의 북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실어 날랐고, 이후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산 석탄과 함께 다른 6척의 배에 실려 다른 나라들로 운반됐다"며 그 목적지엔 "한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하였음.
- 뉴스1. 2018.03.05, "北석탄, 원산지 '세탁' 통해 한국·일본 등에 수출"

◆ 기타

2017년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 발표

-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1월 말 기준, 1,044명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집계된 2002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숫자임.
- 통일부 관계자는 "2017년 12월 탈북자 수를 집계하지 않았으나 많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2017년도 탈북자 수는 1,1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음.
 - 2000년대 이전 1,000명을 밀돌던 탈북자는 2002년(1,142명) 이후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 2009년에는 2,914명에 달했음.
 - 그러나 2012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하며 감소 추세가 되었음. 2012년 탈북자는 2011년(2,706명)의 절반 수준인 1,502명으로 줄었고 2017년에는 1,100명 내외 수준이 되었음임.
 - 탈북자가 줄어든 주요 이유로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체제 결속을 단단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외에도 북한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 악화를 탈북자 감소 이유로 꼽았음.
- 탈북민 입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 2017년 탈북민 입국인원 총 1,127명 중 여성은 938명(83.2%), 남성은 189명(16.8%)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 총 탈북민 입국 3만 1,339명 중 여성은 2만 2,345명(71.3%), 남성은 8,994명(28.7%)으로 집계되었음.

- 최근 연도별 탈북민 입국인원은 2010년 2,402명,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잠정)으로 나타났음.

매일경제, 2018.01.01. 한국 온 탈북자 1000명 '턱걸이'...15년만에 최저, 파이낸셜 뉴스, 2018.01.05, 작년 탈북민 입국 여성이 압도적..여 938명, 남 189명

북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작

- 북한이 올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평양 주재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하였음.

- 평양에 주재하는 한 서방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월 15일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방침과 세부 시행규정이 담긴 서한을 보냈음.

- 북한이 보낸 서한은 오는 1월 20일부터 북한 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부과되며, 일차적으로 평양~원산 고속도로에서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

- 북한이 고지한 통행료 부과 체계를 보면 일반 승용차(1km당 0.02유로)로 평양~원산 구간 194km를 왕복하는데 약 8유로(편도 3.88유로)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RFA는 설명하였음. 또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평양~원산 왕복 통행료가 약 27유로에 달함.

- 북한의 고속도로 유료화 조치는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8.01.18, "北,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평양~원산 왕복 8유로"

UN 사무총장, 북핵의 평화적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언급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각국에 촉구하였음.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월 16일(현지시간)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군사적 수단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음.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야욕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세계가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분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였음.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은 언제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하였음.

매일경제, 2018.02.17, UN 사무총장 "북핵 평화적 해결 기회 놓치지 말아야"

북한, '원산갈마관광지구' 배전선 공사 마무리

- 북한이 배전선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관광지구로 조성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2월 20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며 "관광지구 건설을 위한 가설 배전선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도하였음.
 - 이어 "전력공업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배전선 공사를 결속한 그 기세로 공사장 구역의 송전선 시설공사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고 전하였음.
 - 북한은 2016년 7월 매체를 통해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갈마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며 호텔과 해양체육 및 문화오락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처음 밝힌 바 있음.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건설되는 갈마반도는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조성 중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속해 있음.

연합뉴스, 2018.02.20, 北, '원산갈마관광지구' 배전선 공사 마무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활동 현황 발표, 실업률 7% 및 월평균 임금 178만원 기록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 주요 정착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1.2%, 고용률 56.9%, 월평균 임금 178.7만원, 생활만족도는 73.6%로 나타났음.
 -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1년과 비교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4.7%, 고용률은 7.2%, 월평균 임금은 57.4만원, 생활만족도는 4.3%포인트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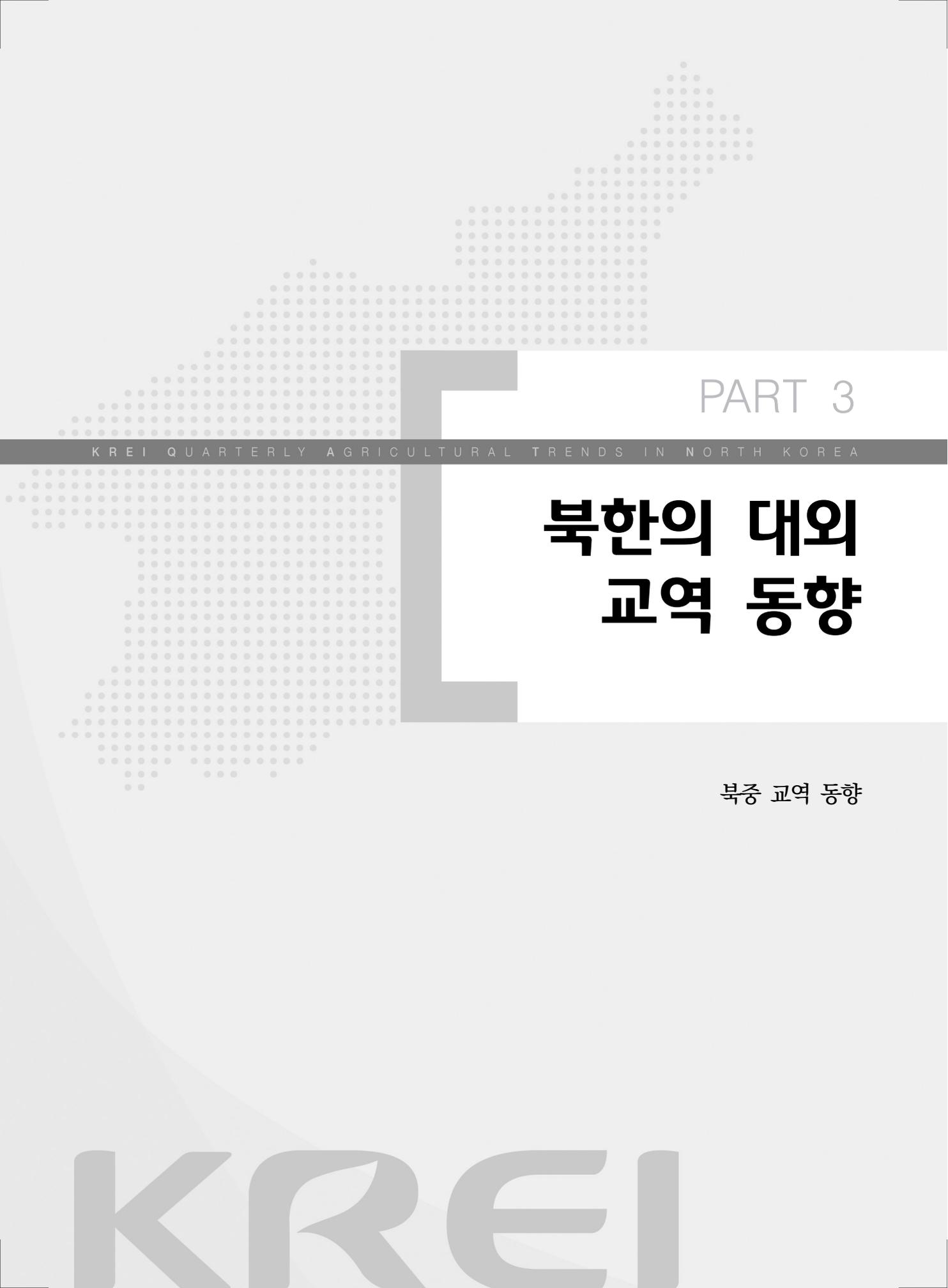
뉴스1, 2018.03.22, 탈북민 실업률 7% '일반국민 2배'...월평균 임금 178만원

북한의 미세먼지 경보 발령

- 북한도 3월 25일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였음.
 -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3월 25일 정오 12시 보도에서 "오늘 9시 평양지방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m^3 당 $144\mu g$ 으로서 일평균 대기환경 기준인 m^3 당 $80\mu g$ 을 초과했다"고 밝혔음.
 - 이어 "내일 아침까지도 중국 대륙으로부터 서풍 기류를 타고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고 안개가 끼면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연합뉴스, 2018.03.25, 北도 미세먼지 경보... "호흡기 약한 사람 마스크 착용"





PART 3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북중 교역 동향

KREI



북중 교역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 2018년 1~3월 북한은 중국에서 총 6만 9,829톤의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전년 동기간의 수입량(5,128톤)에 비하여 1,261% 증가하였음. 곡물 수입액은 26,685천 달러로 전년 동기간의 수입액(1,764천 달러)에 비하여 1,387% 증가하였음.
 - 2018년 3월 북한은 중국에서 2만 6,173톤의 곡물을 수입하였으며, 전년 동월 수입량(3,626톤)에 비하여 곡물 수입량이 622% 증가하였음.
 - 2018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중량 기준)을 살펴보면 밀가루 99.0%, 쌀 0.9%로 쌀과 밀가루의 비중은 99.9%였음.

표 1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6~2017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7. 1	0	0	109	0	55	0	164
2	0	96	46	0	192	0	334
3	0	187	552	0	557	0	1,296
4	0	337	856	0	225	4	1,422
5	0	291	2,053	0	170	1	2,515
6	0	2,251	3,627	0	2,705	5	8,588
7	0	4,640	6,095	0	887	39	11,661
8	0	3,041	4,332	0	2,514	13	9,900
9	0	261	1,428	0	5,387	0	7,076
10	0	0	654	0	4,715	0	5,369
11	0	22	407	0	7,510	0	7,939
12	0	132	1,202	0	7,706	0	9,040
2017.1~12	0	11,258	21,361	0	32,623	62	65,304
2018. 1	0	0	108	0	12,936	0	13,044
2	1	0	0	1	4,525	0	4,527
3	2	0	290	2	8,781	39	9,114
2018.1~3	3	0	398	3	26,242	39	26,685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표 2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6~2017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7. 1	0	0	188	0	193	0	381
2	0	389	60	0	672	0	1,121
3	0	882	956	0	1,788	0	3,626
4	0	1,506	1,542	0	750	4	3,802
5	0	1,320	3,547	0	400	1	5,268
6	0	9,899	6,099	0	6,486	7	22,490
7	0	21,006	10,476	0	2,382	59	33,924
8	0	13,957	7,399	0	6,001	20	27,377
9	0	1,160	2,396	0	13,413	0	16,968
10	0	0	1,058	0	11,600	0	12,658
11	0	100	672	0	17,505	0	18,277
12	0	660	2,016	0	20,464	0	23,140
2017.1-12	0	50,878	36,408	0	81,654	91	169,031
2017. 1	0	0	180	0	31,452	0	31,632
2	1	0	0	1	12,022	0	12,024
3	2	0	457	2	25,652	60	26,173
2018.1-3	3	0	637	3	69,126	60	69,829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 무역정보)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382.1달러였으며, 곡종별로는 쌀 624.8달러, 밀가루 379.6달러였음.
 - 2018년 3월 기준,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348.2달러로 전월 대비 7.5% 하락하였고 밀가루 도입 가격은 342.3달러로 9.0% 하락하였음.
 - 2017년 기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386.3달러였으며 곡종별로는 옥수수 221.3달러, 쌀 586.7달러, 밀가루 399.5달러, 콩 681.3달러였음.
- 2018년 3월 28일 기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 당 904달러(FOB 본선인도가격, 도정율 4% 1등급, 25kg 부대 포장 품질 기준), 태국산 장립종 쌀의 현물 가격은 톤 당 424달러(FOB, 100% B등급 기준)였음.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근월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47달러(yellow corn 2등급 기준), 밀은 164달러, 대두는 374달러(yellow soybean 1등급 기준)였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 2018년 1~3월 북한은 중국에서 비료 3만 904톤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수입량(14만 2,011톤)의 약 21.8%에 해당함. 2017년도 비료 수입액은 7,413천 달러로 전년 수입액(36,407천 달러)의 약 20.4%에 해당함.
- 2018년 1~3월 북한이 수입한 비료는 질소비료 2만 7,719톤이며 인비료, 칼리비료는 수입하지 않았으며, 복합비료는 3,185톤을 수입하였음.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를 성분량 기준¹⁾으로 환산하면, 요소는 6,211톤, 유안은 2,923톤임. 2017년도에 수입된 요소 및 유안의 중량은 각각 5만 3,025톤, 1,536톤임.

표 3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6~2017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7. 1	624	0	0	270	894
2	1,770	0	0	238	2,008
3	10,175	0	20	3,871	14,066
4	5,165	0	3	291	5,459
5	4,128	0	0	457	4,585
6	4,277	0	0	312	4,589
7	2,041	0	4	265	2,310
8	1,069	0	0	0	1,069
9	1,350	0	2	5	1,357
10	20	0	0	0	20
11	88	0	0	58	146
12	31	0	0	120	151
2017.1-12	30,738	0	29	5,887	36,654
2018. 1	280	0	0	678	958
2	1,556	1	0	247	1,804
3	4,066	2	0	583	4,651
2018.1-3	5,902	3	0	1,508	7,413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1) 성분비는 요소 45%, 유안 21%를 적용하였음.

표 4 |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6~2017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7. 1	2,451	0	0	607	3,058
2	6,632	0	0	721	7,353
3	41,453	0	26	12,328	53,807
4	22,378	0	5	750	23,133
5	16,458	0	0	1,087	17,545
6	16,561	0	0	865	17,426
7	7,311	0	8	746	8,065
8	3,467	0	0	0	3,467
9	7,987	0	1	9	7,997
10	60	0	0	0	60
11	275	0	0	151	426
12	117	0	0	221	338
2017.1-12	125,150	0	40	17,485	142,675
2018. 1	847	0	0	1,420	2,267
2	10,043	0	0	491	10,534
3	16,829	0	0	1,274	18,103
2018.1-3	27,719	0	0	3,185	30,90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8년 1~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307.9달러, 118.7달러임.
- 2017년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253.4달러, 120.4달러이며, 2016년도 요소와 유안 비료의 톤당 수입 단가는 각각 230.6달러, 141.5달러였음

PART 4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REI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8.5.

단위: 만 달러

구분	목표 ¹⁾	실적 ²⁾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³⁾	31,376	22,415	71.4	일본 9,568, 한국 5,381, 미국 2,923, 호주 699, EC 500, 우ரி민족서로 돕기운동 421, 캐나다 383, 스웨덴 343, 이탈리아 322, 노르웨이 236 등
7차 '01.1~'12	38,398	37,760	98.3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6,872, 농협 1,274, Korean Welfare Foundation 740, 이탈리아 708, 굿네이버스 69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617 등
8차 '02.1~'12	24,684	36,084	146.2	WFP 9,932, 한국 8,200, 미분류 6,589, 미국 6,349, EC 1,553, 독일 470, 호주 342, 스웨덴 274, 노르웨이 274, 캐나다 273 등
9차 '03.1~'12	22,937	18,670 (381)	81.4	미국 3,152, WFP 2,791, 한국 1,683, EC 1,631, Korean Church Federation 1,288,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93, 독일 491 등
10차 '04.1~'12	520,880	30,178	5.8	한국 11,774, 일본 4,670, EU 3,000, 미국 1,931, 스웨덴 1,154, 호주 824, 독일 800, 적십자사 662, 캐나다 532 등

(계속)

구 분	목 표	실 적 ¹⁾ (이행 약속)	실적율 (%)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이행 약속)
11차 '05.1~12	-	4,983	-	유럽연합 1,740, 독일 777, 스웨덴 546, 이집트 388, 노르웨이 352,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덴마크 RC 90 등
12차 '06.1~12	-	5,054 (1,050)	-	한국 2,198(1,000), EU 1,103(50), 스웨덴 507, 노르웨이 403, 덴마크 157, 아일랜드 152, 독일 129, 이탈리아 106 등
13차 '07.1~12	-	11,698 (1,392)	-	사적지원 3,027(1,172), 한국 2,338,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110, 호주 647(62), 스웨덴 628(73), EU 537, 독일 523, 노르웨이 479 등
14차 '08.1~12	-	5,670	-	한국 1,532, 사우디아라비아 848, 독일 561,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28 등
15차 '09.1~12	-	6,13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한국 1,421, 스웨덴 1,406,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44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캐나다 244,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미국 60,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8,954 (16)	-	WFP 1,66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8, 스웨덴 900, 스위스 838, 호주 705, WHO 690, 노르웨이 266 등
18차 '12.1~12	-	11,779	-	WFP 5,004,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92, 한국 826, 캐나다 799, 스위스 714, 러시아 500, 브라질 412, 노르웨이 351 등
19차 '13.1~12	-	6,280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10, 한국 1,208, 스위스 1,057, 스웨덴 529, WFP 466, 러시아 300, 노르웨이 262, 독일 214, 호주 150 등
20차 '14.1~12	-	3,322	-	한국 65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650, 스위스 504, 스웨덴 489, 캐나다 360, 호주 219, 독일 156, 프랑스 104 등
21차 '15.1~12	-	3,544	-	스위스 1,027,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828, 스웨덴 419, 한국 400, 호주 229, 노르웨이 218, 캐나다 215, 독일 115 등
22차 '16.1~12 ⁴⁾	-	4,597 (219)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05, 스위스 1,038, 독일 365, 스웨덴 318, 러시아 300, 호주 219(219), 캐나다 202, EuropeAid 173 등
23차 '17.1~12	-	5,538 (122)	-	WFP 2,243,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235, 스위스 502, 러시아 300, 스웨덴 167(110), 캐나다 149, 미국 100, 프랑스 49(11) 등
24차 '18.1~5	11,121.7	763.7 (730.4)	6.9	스위스 532(532), 스웨덴 231(198)
총 계	-	286,651.7 (3,910.4)	-	

주: 1)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2)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 금액과 이행 약속(Pledges) 금액을 합산하였으며 이행 약속 금액은 별도 표기하였음. 국가/단체/기구별 지원액도 이와 같음.

3)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되었음. 본 표의 2000~2016년도 지원액은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업데이트하였음. 1995~1999년도 지원액은 구 FTS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였음

4) 2016년도 지원액은 FTS의 구 홈페이지와 신 홈페이지 자료를 비교 후 누락 자료를 보완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May, 24, 2018)

표 2 2018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2018.1.1.~5.24.)

지원창구	지원국/단체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Concern Worldwide	스웨덴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Handicap International	스웨덴	333,132	북한의 급작성 재난 위험 감소 훈련에 관한 지원
FAO	스웨덴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WFP	스위스	(5,324,814)	WFP Multi-Bi Allocation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7F-06817.50)
UNICEF	스웨덴	(974,8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합 계		7,637,017	

표 3 2018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2018.1.1.~5.24.)

분 야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WASH	스웨덴	Concern Worldwide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보건	스웨덴	Handicap International	333,132	북한의 급작성 재난 위험 감소 훈련에 관한 지원
영양	스웨덴	FAO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미분류	스위스	WFP	(5,324,814)	WFP Multi-Bi Allocation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7F-06817.50)
	스웨덴	UNICEF	(974,8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소계		(6,299,710)	
합 계			7,637,017	

표 4 2018년 원조국(단체)별 대북 지원 실적(2018.1.1.~5.24.)

지원국/단체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스웨덴	Concern Worldwide	(504,541)	강원도, 황해북도의 WASH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Handicap International	333,132	북한의 급작성 재난 위험 감소 훈련에 관한 지원
	FAO	(499,634)	농업 분야 DRR/M 및 CCA 수용력 강화를 통한 북한의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2018-2019 다년차 과제)
	UNICEF	(974,896)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소계	2,312,203 (1,979,071)	
스위스	WFP	(5,324,814)	WFP Multi-Bi Allocation 2018 - Contributions under FAC (7F-06817.50)
합 계		7,637,017	

주: 1)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기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약을 마쳐 기부 이행 책임이 있는(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2) FTS(Financial Tracking Database)는 2017년 1월 13일 새로운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음. 본 표는 새로운 홈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2000~2016년도 데이터를 작성하였음.

자료: <https://fts.unocha.org/>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May, 24, 2018)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보도 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1 교류 협력 보도 동향

◆ 국내 관련 기관

농식품부-WFP 간 업무협약 체결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사무총장이 3월 28일 오전 이태리 로마 세계식량계획 본부에서 한국산 쌀 5만 톤의 조달, 운반, 배분업무를 세계식량계획(WFP)에 위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뉴시스, 2018.03.01, 농식품부 WFP와 업무협약체결

◆ 국제기구

유엔, 2018년도 1억 1,4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지원 계획

- 유엔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2018년도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1억 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월 6일 보도하였음.
- OCHA는 최근 공개한 '2018년 세계인도주의지원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800만 명을 포함해 시리아, 예멘, 남수단 등 세계 30개국의 1억 3,570만 명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음.
 - 이어 "북한 인구 1,800만 명이 충분한 영양분 섭취를 못 해 영양실조 상태"라며 "이 중 1,300만 명에 대하여 유엔 주요구호기구의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하였음.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카린 홀쇼프 동아시아지역 사무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5세 미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과 장비가 부족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조기경보-식량안보 및 농업에 관한 조기행동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에 따르면 FAO는 유엔의 제재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소해 운송분야에서 석유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라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2018년 초 악화될 것으로 분석하였음.
 - 보고서는 또 2017년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도, 남포시의 곡창지대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전체 주민 가운데 70% 정도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관측하였음. 아울러 "비료, 종자, 소형 농기구 등의 제공이나 가금류 및 돼지 등 소규모 가축 등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뉴스1. 2018.01.06, 北, "유엔, 올해 1억1400만 달러 대북 인도적지원 계획"-RFA

WFP, 2018년 봄 북한 당국과 식량상황 조사 예정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봄 북한 전역의 식량보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월 6일 보도하였음.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WFP는 최근 공개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올해 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식량안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북한 협동농장 등 현장을 방문해 가구별 식량확보 상황과 주민의 건강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WFP는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000만 명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로,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북한 74개 시·군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55만 8천여 명에게 1,668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2.06, "WFP, 올해 봄 北당국과 식량상황 조사"

WFP, 2017년도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21년 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발표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2017년도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21년 만에 가장 작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월 24일 보도하였음.
 - WFP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의 실체 버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7년 12월 북한 74개 시·군 내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취약계층 57만 8천여 명에게 1,703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2017년 WFP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 총량은 2만 1,777톤으로, 1996년 이후 최소 규모라고 밝혔다.

- WFP의 대북 식량 지원은 1995년 5,140톤으로 시작해 1996년 5만 4천여 톤으로 늘었고, 1997년에는 43만 2천여 톤으로 증가하였음.
 - 이후 2001년 사상 최대인 93만여 톤을 기록한 뒤 점차 줄다가 2015년에는 2만 4,600여 톤, 2016년에는 2만 4,500여 톤으로 감소하였음.
- 실케 버 대변인은 2017년 WFP의 대북 지원 규모가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2018.02.24, WFP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 21년 만에 최소 규모"

PART 5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가금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
우리 나라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KREI



가금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김 성 철

-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가금업부문 앞에는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고기와 알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할 과업이 있음.
 - 가금업을 발전시켜 고기와 알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 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 해줄 수 있음.
 - 가금업부문 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가금업부문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수립하여야 함.
- 가금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첫째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임.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가금업 발전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돌파구, 가금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할 중심고리임.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의 능력은 대단히 크며 이 가금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면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음.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목표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경제 조직사업을 만들어 고기와 알 생산을 빨리 늘리도록 하여야 함.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4호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먹이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가금기지들을 관리운영하는 것에서 기본은 알곡먹이를 잘 보장해주는 것임. 가금기지들에 알곡먹이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기와 알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음.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의 먹이용 알곡보장기지로 되어 있는 협동농장들에서 알곡 생산을 늘려야 함.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 알곡먹이를 원만히 보장해주자면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제를 세워야 함.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의 먹이용 알곡보장기지로 되어 있는 협동농장에 가금기지들에서 나오는 닭, 오리배설물을 많이 보내주어 알곡수확고를 더욱 높이도록 하며 가금배설물에 의한 유기질 복합비료생산을 늘려 먹이보장기지의 알곡 소출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함.
 - 먹이보장기지들에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비료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함.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서 알곡먹이를 절약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가금기지들에서 톱밥이나 벚겨를 섬유소 분해 효소로 처리하여 가금 먹이로 이용하면 알곡먹이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음.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 전기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 가금기지들에서 전기는 생명과 같음. 만일 닭공장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정전이 되면 수 많은 종자 닭알을 한순간에 못쓰게 만들 수 있으며 생산정상화에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음. 전력부문에서는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를 2중, 3중으로 세워 어떤 경우에도 정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서는 자체의 변전설비들과 동력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다루는 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사소한 전기사고도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금업부문의 단위들에서는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켜 고기와 알 생산에서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함.
- 가금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들쭉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가금업 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풀어나 가는 것임.
-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정신임.
 -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음.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 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음.
- 가금업부문에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가금업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가금업 발전 전략 목표 실현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뚫고나가야 함.
 - 가금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동요 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어나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하며 자기의 것이 제일이고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다져야 함.
 -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수입병과 같은 잡사상들을 쓸어버리고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함.
- 현대적인 가금기지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가금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함.
 - 가금 우량 품종 육종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북한의 기후 풍토와 먹이조건에 맞는 품종들을 얻어내야 하며 가금 먹이 문제도 북한에 풍부한 먹이원천을 탐구동원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먹이첨가제를 연구개발하여 해결하여야 함.
 - 새로운 가금기지들의 건설과 이미 건설된 닭공장, 오리공장들의 현대화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진행하며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함.
- 가금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셋째로, 가금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가금업을 발전시키는 것임.
- 가금업 발전을 위한 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면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금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가금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높여야 함.
 - 알과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의 한 부문인 가금업에서도 가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가금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가금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금업 발전 전략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 가금업에서는 종자와 먹이보장, 사양 관리와 수의방역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이 관건적 문제들을 가장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음.
 - 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금업에서 고기와 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방도임. 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엇보다 먼저 우량가금품종을 적극 받아들여 고기와 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함.

- 가금업 생산물생산에서 첫째가는 문제로 나서는 것은 가금 종자 문제임. 같은 환경에서도 가금 종자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알을 많이 낳으며 복한의 기후 풍토에 적응된 우량품종의 가금을 길러야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도 고기와 알 생산을 빨리 늘릴 수 있음.
 -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가금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육종사업의 전과정은 과학기술과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
 - 해당 가금의 생리학적 특성과 유전적 원리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가금 종자 고르기를 옹계 진행할 수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교배방법을 적용하여 재래종에 비하여 몇 배, 몇 십배의 생산성을 가진 우량품종의 가금 종자를 얻어낼 수 있음.
 - 세계적추세를 보아도 가금 종자고르기에서 여러가지 현대수학적방법과 분자생물기술을 받아들이고 순종 번식에 의한 생산으로부터 잡종 강제 효과에 의한 생산으로 넘어가는 등 원종체계를 종축체계를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금 과학기술 발전을 우선시하고 최신 과학기술 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야 1대잡종체계를 비롯한 과학적인 육종체계를 세워 우량품종의 가금 종자를 얻어낼 수 있으며 고기와 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
- 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음으로 가금 먹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고기와 알 생산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게 함.
 - 가금의 번식과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금업부문의 생산에서 먹이보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사활적인 요구임.
 - 먹이보장은 가금 고기 및 알 생산과 직결됨. 아무리 가금 품종이 좋고 관리 조건 이 현대적이라고 하더라도 먹이를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면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으며 고기와 알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됨.
 - 가금 먹이 문제를 옹계 해결하여야 풀과 고기를 바꾸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는 것에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도 뚜렷이 과시할 수 있음.
 -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 먹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도는 가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먹이단위를 낮추는 것임.
 - 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러가지 복합미생물과 먹이첨가제를 개발이용하여 가금업에서 먹이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먹이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할 수 있게 함.
 - 효능 높은 미생물들을 연구하여 받아들이면 거친먹이, 건먹이들이 분해되어 집짐승의 소화흡수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먹이로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먹이로 이용할 수 있음.

- 그리고 과학적인 계산과 실험을 통하여 얻어낸 먹이첨가제들은 같은 먹이조건에서도 가금의 증체률과 알낱이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함.
 - 여러 단위들에서 효능 높은 복합미생물과 성장촉진제를 비롯한 먹이첨가제들을 적극 연구 이용하여 높은 생산 실적을 내고 있는 사실은 과학기술 발전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때 먹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고 고기와 알 생산을 안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가금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음으로 가금 사양 관리와 위생방역사업을 과학화하여 가금업 부문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함.
- 가금 사양 관리와 위생방역사업은 가금업의 기본 생산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가금 사양 관리에서 기본은 가금 종류별, 품종별, 성장단계별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사양표준과 가금의 하루먹이량, 배합먹이처방 등을 옳게 규정하고 알낱이, 온습도보장 등 사양 관리의 모든 요소와 공정들을 합리적으로 맞물리는 것임.
 - 한편 가금방역사업에서는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가금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예방 치료대책을 제때에 세우는 것이 중요함.
 - 가금 사양 관리와 가금방역사업에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가장 신속하게,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현대적인 가금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가금 사양 관리와 가금방역사업을 과학화하는데 있음.
 - 현대적인 가금 과학기술은 가금종류별, 품종별, 나이별 소화생리적 특성과 그에 따르는 먹이 성분들의 배합 비율, 가금의 증체률과 알낱이률을 높이는데 알맞는 먹이주는 시간, 가금우리의 온습도와 환기, 조명조건 등을 가장 정확히 선택할 수 있게 함.
 - 또한 전염병을 비롯한 가금질병의 발생과 전파경로, 각종 질병의 특성을 빨리 해명하여 수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 치료방법을 갱신하게 할 뿐아니라 소독과 위생환경 보장사업도 부단히 혁신할 수 있게 함.
 - 가금업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가금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쏟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함.
 - 국가과학원과 농업성, 가금업부문 지도기관에서 가금전문과학연구기관들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최신가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연구기관들을 조직하며 가금공장들에 연구개발단위들을 잘 꾸리고 가금 기술개발을 맡아하도록 하여야 함.
 - 축산대학, 농업대학들이 가금 과학연구와 가금 기술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적인 가금기자들이 가금 기술개발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 가금업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는 넷째로, 가금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 있게 양성하며 가금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것임. 무엇보다 먼저 가금 기술 인재 양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진행하여야 함.

- 가금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서도 가금 기술자, 가금 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오늘 가금업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고도로 현대화, 집약화되는 새로운 단계에 발전하고 있음.
 - 따라서 높은 실력을 지닌 가금 기술 인재를 늘리지 않고서는 현대적인 가금공장들을 제대로 관리운영할 수 없고 나라의 가금업을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발전시킬 수 없으며 높은 세운 가금업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음.
 -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 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가금 기술 인재 양성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함.
- 가금 기술 인재 양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가금 기술 인재 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가금 기술자, 가금 전문가를 늘리는 것임.
 - 가금업이 확대발전하는데 따라 가금 기술자,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 가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금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과학화, 집약화하자면 가금업부문에서 기술 인재의 비중을 높여야 함.
 - 현실 발전의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가금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가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단위를 강화하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함.
 - 가금 기술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 학부, 학과를 정비보강하고 정연한 교육 체계를 세워야 함.
 - 축산대학, 농업대학들에서 가금 전문가를 키워내는 학부, 학과를 강화하고 학생 수를 늘리며 가금학, 가금 기술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개선하여야 함.
 - 그리하여 높은 실력을 가지고 가금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금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현대적인 가금공장들에서 가금 사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유능한 가금 기술자들을 양성하여야 함.
- 가금 기술 인재 양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현대적인 가금 기지들에서 자체로 가금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키워내는 것임.
 - 가금업부문에서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려 가금업부문 근로자들 모두가 선진가금 기술을 배우고 현대적인 기술 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며 더 많은 가금업부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하도록 하여야 함.
 -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힘 있게 진행하여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가금 과학기

술과 가금 사양 관리, 가금방역사업에 정통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가금 기술 인재들로 준비시킴으로써 가금업부문에서 당의 전면과학기술 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 하여야 함.

- 다음으로 가금 과학기술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함.
 - 가금공장들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연결된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가금 과학기술자료들, 가금업 발전추세와 관련한 자료들이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함.
 -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가금업부문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이 가금 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모든 단위들과 농촌세대들에 가금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가금 과학기술자료들과 가금업 발전 추세자료, 가금기르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보급하여야 함.
 - 신문과 잡지, 소리방송, TV를 통하여 가금업과 관련한 당정책과 가금 과학기술지식, 상식자료들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가금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며 가금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

실마리어 가금업, 가금기지

우리 나라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에 대하여*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신 광 수

- 산림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 사회의 문명과 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그 이용 가치와 그것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오늘날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음.
 - 산림은 인류가 의거하여 살아가는 생태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임. 산림은 물원천의 조성과 토양의 보존, 기후조절과 농경지보호, 공기정화와 오염방지 등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태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통하여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오늘 산림 면적의 축소는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임. 지구상의 산림 자원은 생태균형과 생물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때문에 산림 자원이 파괴되면 대기와 물, 동식물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산림 자원의 축소는 인류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첫째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는 것임.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량적인 방출에 기본원인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산림 자원의 축소에 의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둘째로, 이상기후현상을 초래하여 농업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임. 산림 면적의 축소는 세계적인 가뭄과 열파, 무더기비 등을 가져오며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파괴하고 있음.
 - 셋째로, 세계적으로 동식물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산림 조성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지금 세계적으로 산림 조성 사업은 지역적문제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이 돌려지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3권 제4호

-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게 산림 조성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산림은 그 조성기간이 김. 산림은 산림 조성을 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에 이용될 수 있고 국토보호 및 풍치조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산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며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이용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임.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은 첫째로,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고 있는 것임.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의 종합적 성격은 산림 조성사업을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경제건설과 문화,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있음.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은 우선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업원료를 산을 이용하여 보다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진행되고 있음.
 - 북한에서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충분히 생산보장하는 것을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특히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산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금 북한에는 현대적인 경공업생산기지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인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인민 생활 향상을 국가의 최고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에서는 인민 생활 향상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투자를 늘려 중앙과 지방들에 꾸려진 경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여 그 생산 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산림 조성사업은 인민 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공업부문에 대한 원료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게 함.
-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물의 많은 부분은 경공업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산이 많고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농업 생산물은 그 자체의 특성과 농경지의 제한성으로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원료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음.
 - 산이 많은 조건에서 산에 기름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고 쓸모가 있는 나무종류들로 경제림을 조성하고 사과, 산나물, 약초 등 야생원료기지와 과수원과 뽕밭을 만들어 놓으면 오랜 기간 해마다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음.

- 이것은 경공업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원료기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방직, 종이, 식료 및 일용공업과 같은 경공업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원료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게 함.
 - 또한 산에 경제림을 조성하고 산을 이용하여 과수, 잡업, 축산기지를 형성하는 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있게 함.
 - 북한에서는 나라의 모든 산들에 빨리 자라고 쓸모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 산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고 철저히 보호관리하여 목재를 비롯하여 각종 원료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인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있음.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은 또한 국토를 보호하고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은 산이 국토면적의 약 80%를 차지하며 물매가 심한 산악과 크고작은 강 하천이 많으며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는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하여 산림을 적극 조성, 보호하지 않으면 쉽게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음.
 - 북한에서는 산과 강하천주변에 대한 나무심기와 풀뚝 다락밭 건설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하여 큰물로부터 농경지와 도시, 마을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북한에서는 도시녹화사업도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녹화라고 할 때 도시와 마을, 산과 들에 쓸모 있는 여러가지 식물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시녹화사업을 잘하는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언제나 맑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에 차넘칠 수 있게 함.
 - 일반적으로 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생산 활동이 진행되며 많은 운수수단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대기가 다른 지대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오염될 수 있음.
 - 도시에 위생학적 요구에 맞는 대기환경을 기술공학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그것은 아무리 능률적인 제진장치와 가스잡이시설을 갖춘다고 하여도 그 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임.
 -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위생학적으로 보다 깨끗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요구하게 됨. 바로 이러한 위생학적 요구를 만족시키는데서 효과적인 방도가 도시녹화임.
 - 북한에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 요구 밑에 도시와 농촌들에 자연 풍치와 지대적 특성을 살려 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고 현대적으로 꾸려 인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있음.
 - 특히 려명거리 도시녹화는 북한 도시녹화의 표준, 본보기로 되고 있음.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의 특징은 들째로, 전면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고 있는 것임.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은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며 후대들에게 푸른 숲 설레이는 보다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애국사업으로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음.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의 전면적 성격은 개별적인 산 또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기관이 맡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음.
 - 북한에서는 10년 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내세우고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온 나라가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벌리고 있음.
 - 북한에서 산림복구전투는 새 조국건설시기 일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산 림을 급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또한 한국전쟁 시기 미제의 야수적 만행에 의하여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었음.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산림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나라의 산들에는 나무들이 무성하였음.
 - 북한의 산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벗겨지기 시작하여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음.
 - 제국주의자들은 북한의 산림 자원을 파괴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병균을 퍼뜨려 산에 있는 나무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말라죽게 하였으며 각종 경제제재책동을 통하여 산림이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없게 하였음.
 - 그리하여 지난 기간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서 산림의 황폐화로 하여 커다란 물질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
- 북한은 산림복구를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최단 기간 내에 끝내어 모든 산에 푸른 숲으로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완강하게 진행하고 있음.
 - 2014년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전국적으로 660여 톤의 나무종자를 채취 하고 근 8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이깔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10여종의 4천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2015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6만여 정보에 나무를 심었음. 2016년 3월 2일에는 식수절 70돐을 맞으며 하루 동안에 전국적으로 350여 만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북한에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전국가적인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중앙양묘장을 비롯하여 도, 시, 군들에 조성되어 있는 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그리고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해마다 수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군중적 운동으로 나무심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은 짧은 기간에 온 나라를 푸른 숲으로 뒤덮이도록 하여 숲에서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
- 우선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은 김정은에 의하여 조직진행되고 있음.
 - 김정은은 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방문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과업들을 제시하고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
 - 김정은은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진행하여 10년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힘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음.
 - 김정은은 산림복구전투를 국가적인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산림복구전투지휘부를 조직하도록 하였음.
 - 김정은은 국가적인 산림 조성계획에 따라 현대적인 나무모 생산기지들을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도록 하였으며 산림 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동시에 다 같이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음.
 -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며 양묘장을 현대화, 과학화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현대화된 양묘장을 돌아보면서 모든 도들에 토지절약형, 노동력 절약형 양묘장으로 건설하여 한해에 2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보장하도록 요구하였음.
 - 김정은의 지도 아래 집약적인 산림 조성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중앙양묘장을 비롯하여 도, 시, 군들에 수십정보씩의 양묘장들이 조성되고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되어 해마다 수억그루의 나무모들이 생산되고 있음.
- 북한에서 산림 조성사업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원료와 연료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에너지와 동력문 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북한에서는 산림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도 통나무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산림 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조직진행하고 있음.
- 립업부문에서 순환식 채벌방법을 받아들여 통나무생산과 산림 조성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조직진행하고 있음.

- 순환식 채벌방침은 김일성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1963년 8월부터 북한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있음.
 - 순환식 채벌 방법은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산림을 적당한 구역으로 가르고 그 구역을 순환하면서 계획적으로 채벌하여 임산 자원 조성과 목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임업노동자들의 노동 및 생활조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채벌방법임.
 - 순환식 채벌방법을 받아들이면 노동력, 설비, 자금을 늘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업에서 투기성을 없애고 목재를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
- 북한에는 나라의 강하천들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들과 중소규모 수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음.
 - 북한은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하천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연간 강수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계절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함.
 - 그러나 나라의 모든 산을 수림화하여 산림이 물의 조절자, 함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수력발전소들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전력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음.
- 이처럼 북한에서의 산림 조성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진행되어 짧은 기간에 나라의 모든 산을 수림화하고, 당에서 제시한 전략적 목표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실마리어 산림, 산림복구, 산림 조성, 수림화





PART 6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부 록

남북한 교역 통계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KREI



◆ 남북한 교역 통계¹⁾

표 1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23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2012	36,504	377	1,073,952	45,311	705	897,153	1,971,105	△176,799
2013	20,566	359	615,243	25,562	644	520,604	1,135,847	△94,640
2014	38,460	349	1,206,202	47,698	697	1,136,437	2,342,639	△69,765
2015	45,640	362	1,452,360	55,267	718	1,262,116	2,714,476	△190,244
소 계	371,622	847	12,410,599	426,027	1,105	12,074,570	24,485,169	△336,029
2016.1	4,180	211	147,344	4,986	430	119,192	266,536	△28,152
2016.2	1,166	151	38,536	1,088	271	26,561	65,097	△11,975
총 계	376,968	848	12,596,479	432,101	1,105	12,220,323	24,816,802	△376,156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96호.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 2016.05.24.

1) 유의미한 교류협력 통계가 없어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은 2016년 3월호부터 발간되지 않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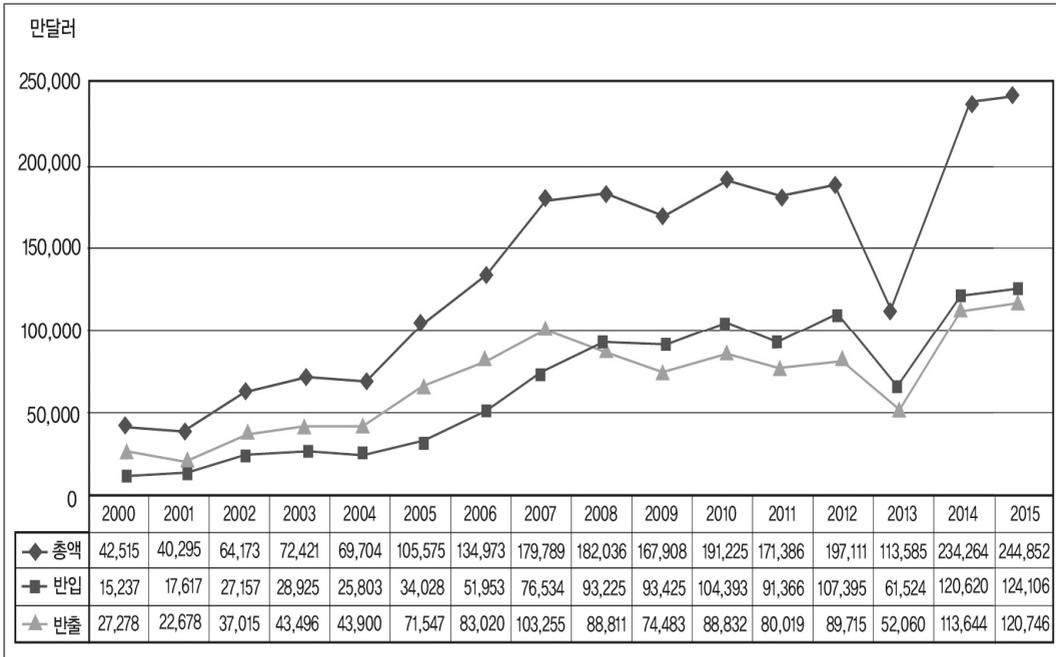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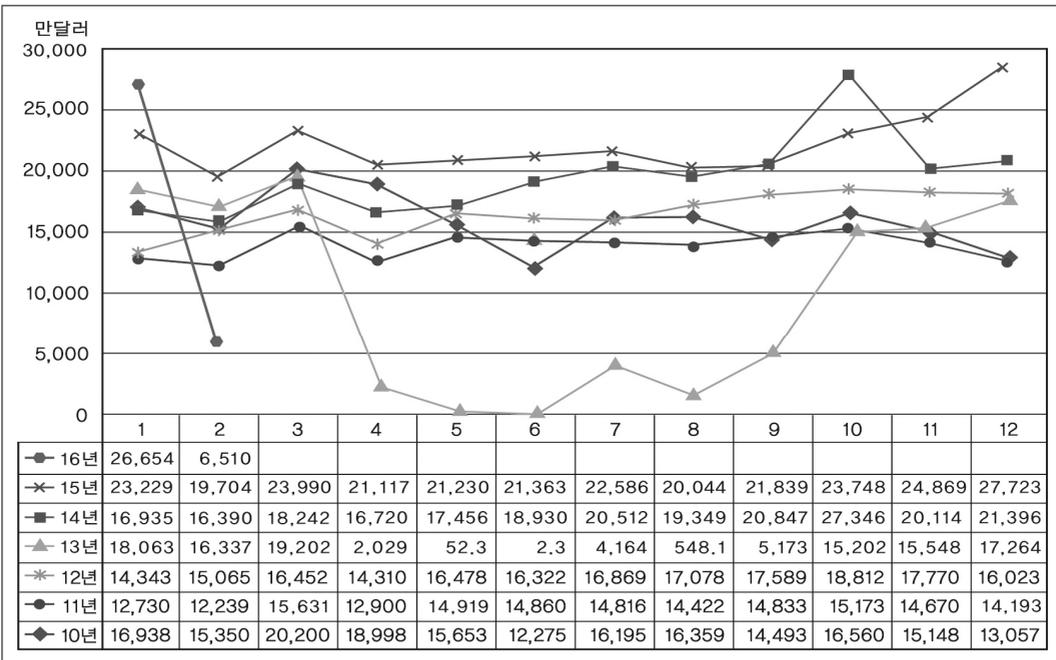


표 2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8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19	183	137,058	207,913	65,516	1,760	6,278	4,685	78,239	286,152	△129,674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66,270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2011	3,343	-	0	2,263	5,607	24,340	641	318	2,167	27,464	33,071	21,857
2012	4,494	-	180	1,951	6,626	25,935	1,254	1,239	1,858	30,286	36,912	23,660
2013	2,170	-	13	1,614	3,798	14,697	814	334	1,192	17,036	20,834	13,238
2014	4,416	-	45	1,798	6,262	25,609	3,964	707	1,517	31,801	38,063	25,539
2015	5,649	-	62	1,935	7,644	18,802	1,503	967	2,516	23,788	31,432	16,144
소 계	534,608	3,336	51,445	1,030,335	1,619,729	1,047,010	34,288	32,989	34,725	1,149,012	2,768,741	△470,717
2016.1	521	-	1	313	835	1,389	13	16	92	1,510	2,345	675
2016.2	369	-	-	96	465	391	1	3	43	438	903	27
총 계	535,498	3,336	51,446	1,030,744	1,621,029	1,048,790	34,302	33,008	34,860	1,150,960	2,771,989	△470,06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94~296.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 2016.05.24.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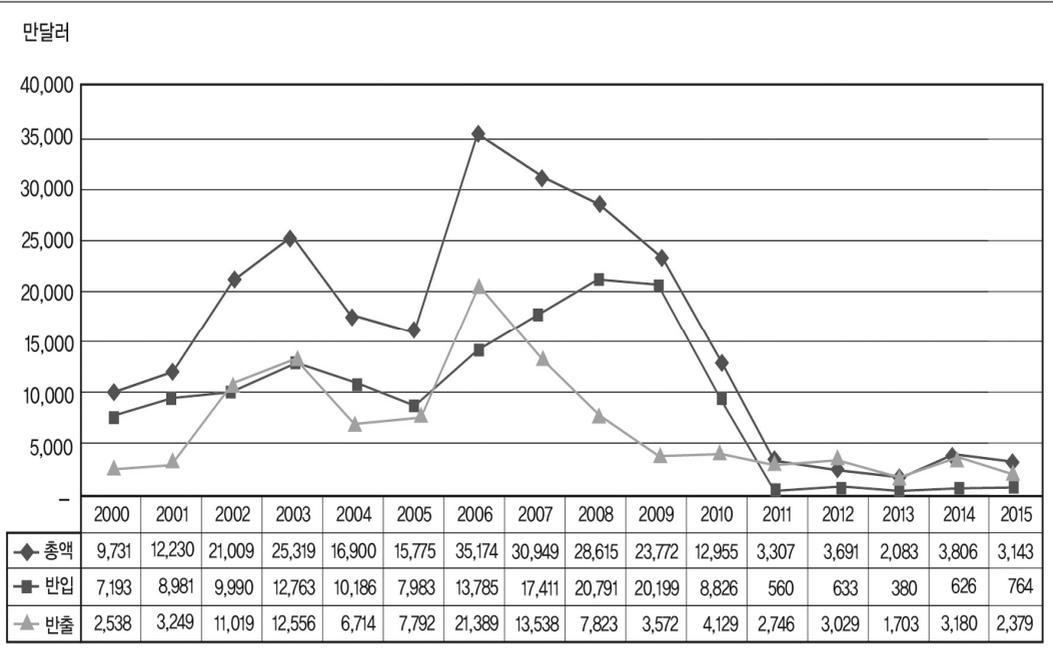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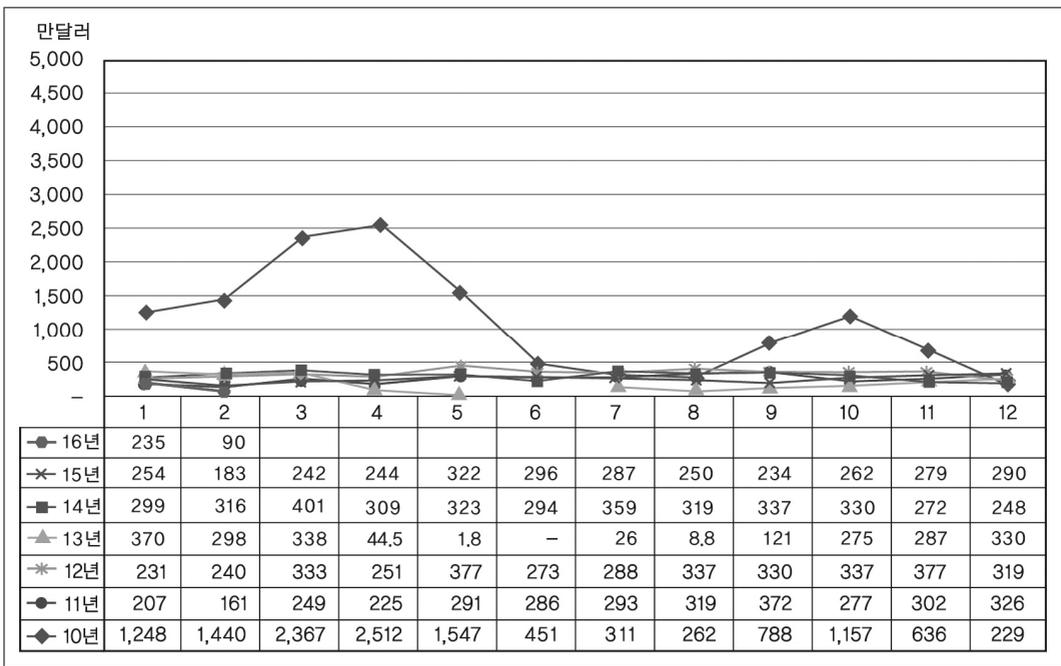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북한 시장의 품목별 가격

1.1. 곡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부침쌀 (시장가격)	6,317 0.78	6,083 0.74	5,567 0.69	4,783 0.58	4,275 0.57	4,758 0.64	6,508 0.78	5,350 0.66	4,967 0.60	5,150 0.63	6,067 0.71	5,475 0.63	5,038 0.63	5,067 0.61	5,411 0.66	5,418 0.67	4,823 0.60	5,779 0.71	6,109 0.75	5,247 0.65
부침쌀 (국정가격)	46 0.01																			
한국쌀																				
중곡쌀	5,700 0.71	5,767 0.71	5,067 0.62	4,833 0.59	4,592 0.61	4,875 0.65	5,842 0.70	4,833 0.59	5,017 0.61	5,100 0.62	5,175 0.61	5,125 0.59	5,088 0.62	4,750 0.57	4,975 0.60	5,015 0.62	3,991 0.50	4,709 0.58	5,127 0.63	4,703 0.58
두부콩	6,117 0.76	6,517 0.80	6,283 0.77	5,717 0.69	5,233 0.70	5,233 0.70	5,417 0.65	4,717 0.58	4,425 0.54	4,583 0.56	3,567 0.42	3,868 0.44	3,845 0.47	3,845 0.46	4,378 0.53	4,403 0.55	4,562 0.57	4,543 0.56	4,442 0.54	4,102 0.51
통옥수수 (시장가격)	2,550 0.32	2,333 0.29	2,267 0.28	2,083 0.25	1,525 0.20	2,733 0.37	2,917 0.35	1,958 0.24	1,667 0.20	1,817 0.22	2,068 0.24	2,092 0.24	2,012 0.25	1,842 0.22	1,088 0.13	1,125 0.14	1,175 0.15	1,266 0.16	2,508 0.31	2,214 0.27
통옥수수 (국정가격)	25 0.00																			
감자	717 0.09	908 0.11	950 0.12	1,083 0.13	967 0.13	833 0.11	1,193 0.14	1,177 0.14	1,100 0.13	983 0.12	950 0.11	868 0.10	880 0.11	483 0.06	883 0.11	952 0.12	883 0.11	685 0.08	1,077 0.13	963 0.12
고구마	2,075 0.26					1,212 0.16		1,033 0.13	1,106 0.13	1,230 0.15	1,020 0.12	1,208 0.14								

1.2. 채소과일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사과	6,083 0.76	5,833 0.71	6,650 0.82	5,617 0.68	5,017 0.67	4,550 0.61	4,225 0.51	4,258 0.52	4,492 0.55	4,658 0.57	3,550 0.42	3,983 0.46	2,883 0.36	1,492 0.18	1,538 0.19	1,477 0.18	1,578 0.20	1,486 0.18	1,187 0.14	1,147 0.14		
배추	1,133 0.14	1,733 0.21	1,583 0.20	1,725 0.21	3,100 0.41	4,050 0.54	3,475 0.42	3,475 0.43	2,917 0.36	1,883 0.23	2,033 0.24	2,525 0.29	6,158 0.76	1,155 0.14	1,633 0.21	1,848 0.23	5,677 0.70	525 0.06	960 0.12	960 0.12	1,690 0.21	
무	908 0.11	1,458 0.18	1,067 0.13	1,000 0.12	1,133 0.15	1,667 0.22	1,400 0.17	1,400 0.17	1,492 0.18	850 0.10	1,033 0.12	1,265 0.14	2,808 0.35	2,000 0.24	1,030 0.13	1,180 0.15	1,992 0.25	706 0.09	972 0.12	972 0.12	1,005 0.12	
콩나물	900 0.11				1,500 0.20	1,083 0.14		1,517 0.19	1,500 0.18	1,410 0.17	1,196 0.14	1,500 0.17										
마늘	7,933 0.99												12,808 1.58	12,808 1.54	10,567 1.28	9,892 1.23	11,458 1.42	11,017 1.36	9,163 1.12	9,163 1.12	9,033 1.11	
팥													7,457 0.92	6,492 0.78	5,983 0.73	5,766 0.72	5,963 0.74	5,997 0.74	4,379 0.53	4,379 0.53	4,002 0.49	
참깨													14,700 1.81	15,317 1.85	14,533 1.76	13,667 1.70	14,567 1.81	11,893 1.46	7,150 0.87	7,150 0.87	10,517 1.30	
양파													7,143 0.88	6,497 0.78	5,520 0.67	5,167 0.64	6,027 0.75	6,000 0.74	5,000 0.61	5,000 0.61	7,150 0.88	
건고추													25,533 3.15	25,533 3.08	23,150 2.81	21,700 2.70	22,342 2.77	17,992 2.21	13,708 1.67	13,708 1.67	12,500 1.54	
호박													없음	4,775 0.58	1,600 0.19	2,133 0.26	4,000 0.50	925 0.11	1,150 (중국산) 0.14	1,150 (중국산) 0.14	1,803 (중국산) 0.22	

주: 사과와 배추의 단위는 1알(약 300g)임.

1.3. 임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밤													12,317	12,317	10,867	10,550	12,917	13,100	10,833	10,067
													1.52	1.49	1.32	1.31	1.60	1.61	1.32	1.24
꿀													26,133	26,133	20,442	18,917	20,283	20,283	19,267	18,233
													3.22	3.15	2.48	2.35	2.52	2.50	2.35	2.25
긴표고													37,078	37,078	33,767	32,567	33,467	31,933	22,500	27,083
													4.57	4.47	4.10	4.04	4.15	3.98	2.75	3.34

1.4. 축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돼지고기	12,083	12,083	15,917	19,500	16,917	13,667	16,083	16,083	13,500	11,567	14,750	10,717	12,917	9,842	11,767	12,850	12,550	13,113	17,533	14,517
	1.50	1.48	1.96	2.37	2.26	1.83	1.94	1.97	1.64	1.40	1.73	1.23	1.59	1.19	1.43	1.60	1.56	1.61	2.14	1.79
닭고기					11,676	12,950	14,933						31,717	31,717	26,942	25,950	24,833	25,300	23,300	22,833
					1.56	1.73	1.80						3.82	3.82	3.27	3.22	3.08	3.11	2.84	2.82
달걀	792	842	983	1,017	892	942	1,075	1,075	1,000	800	833	917	850	655	520	590	618	590	707	642
	0.10	0.10	0.12	0.12	0.12	0.13	0.13	0.13	0.12	0.10	0.10	0.11	0.10	0.08	0.06	0.07	0.08	0.07	0.09	0.08

주1: 달걀의 단위는 1알임.

1.5. 수산물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냉동명태	7,200	8,083	7,483	6,950	6,767	6,583	6,508	6,883	6,887	6,817	11,283	13,500	14,813	13,158	13,842	13,192	11,383	11,725	12,125	11,800
미른명태	0.89	0.99	0.92	0.84	0.91	0.88	0.78	0.84	0.83	0.83	1.33	1.55	1.83	1.59	1.68	1.64	1.41	1.44	1.48	1.46
미른명태	6,583	6,617	6,350	6,217	5,683	5,500	5,400	6,567	6,458	5,925	6,492	6,683	6,424	6,467	5,402	5,540	6,380	7,452	7,392	6,875
	0.82	0.81	0.78	0.75	0.76	0.74	0.65	0.81	0.78	0.72	0.76	0.77	0.79	0.78	0.66	0.69	0.79	0.92	0.90	0.85
미른낚지 (건오징어)	3,167	3,167	3,050	3,008	2,767	2,600	2,900	2,750	2,750	2,917	2,917	3,150	4,113		5,000	5,058	5,408	5,025	4,200	4,250
	0.39	0.39	0.38	0.37	0.37	0.35	0.35	0.34	0.33	0.35	0.34	0.36	0.51		0.61	0.63	0.67	0.62	0.51	0.52
김	6,125	563	572	842	567	567	567	567	500	520	520	520	508	508	523	524	528	530	510	495
	0.76	0.07	0.07	0.10	0.08	0.08	0.07	0.07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7	0.07	0.07	0.06	0.06
미역	3,867	3,867	4,283	4,150	3,833	4,017	3,817	3,817	4,067	3,317	3,450	3,267		3,550	2,998	3,158	3,687	3,350	3,078	3,080
	0.48	0.47	0.53	0.50	0.51	0.54	0.46	0.47	0.49	0.40	0.41	0.37		0.43	0.36	0.39	0.46	0.41	0.38	0.37
소금	1,042	950	900	1,017	600	575	625	625	663	442	867	883	900	613	525	488	528	630	683	602
	0.13	0.12	0.11	0.12	0.08	0.08	0.08	0.08	0.08	0.05	0.10	0.10	0.11	0.07	0.06	0.06	0.07	0.08	0.08	0.07

주1: 냉동명태, 미른명태의 단위는 1마리임.

주2: 미른낚지의 단위는 20마리임.

주3: 김의 단위는 20장임.

1.6. 가공식품류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밀가루	6,408	5,867	5,283	5,167	5,283	5,333	5,413	5,408	5,392	5,533	5,083	5,002	5,000	5,008	5,040	5,153	4,900	4,983	5,212	5,025
	0.80	0.72	0.65	0.63	0.71	0.71	0.65	0.66	0.65	0.67	0.60	0.57	0.62	0.60	0.61	0.64	0.61	0.61	0.64	0.62
밀가루 국수	6,550	6,233	6,083	5,750	5,183	5,417	5,500	5,500	5,500	5,567	5,033	4,558	4,350	4,567	4,575	4,592	4,450	4,994	5,238	4,940
	0.81	0.76	0.75	0.70	0.69	0.72	0.66	0.67	0.67	0.68	0.59	0.52	0.54	0.55	0.56	0.57	0.55	0.61	0.64	0.61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두부	1,117 0.14	1,283 0.16	1,233 0.15	1,082 0.13	982 0.13	983 0.12	1,175 0.14	1,317 0.16	1,100 0.13	1,342 0.16	983 0.12	983 0.11	1,075 0.13	1,033 0.12	1,120 0.14	1,125 0.14	1,117 0.14	1,168 0.14	1,145 0.14	1,063 0.13	
생선	6,117	6,400	6,360	6,233	6,068	6,158	6,208	5,668	5,668	5,667	5,867	5,667	5,133	5,133	8,861	8,545	8,483	8,593	8,496	8,274	
통조림	0.76	0.78	0.78	0.76	0.81	0.82	0.75	0.69	0.69	0.71	0.69	0.67	0.63	0.62	1.08	1.06	1.05	1.06	1.04	1.02	
광기름 (북한산)	13,667 1.70	14,683 1.78	15,917 1.96	16,417 1.99	15,500 2.07	15,417 2.06	16,000 1.93	16,000 1.96	12,000 1.46	13,167 1.60	13,250 1.56	12,100 1.39	12,782 1.58	12,188 1.47	12,863 1.56	13,513 1.68	11,388 1.41	9,172 1.13	9,955 1.22	10,425 1.29	
과일	6,100	6,100	6,100	6,080	5,833	5,783	5,783	5,783	5,783	5,783	5,383	5,317	5,277	5,277	5,317	5,192	5,067	5,085	4,738	4,815	
통조림	0.76	0.75	0.75	0.74	0.78	0.77	0.70	0.71	0.70	0.70	0.63	0.61	0.65	0.64	0.65	0.64	0.63	0.63	0.58	0.59	
시탕	7,450	8,167	8,250	7,917	7,450	7,183	7,217	6,350	6,400	6,042	5,683	4,695	5,182	5,630	5,088	5,192	6,287	6,037	6,240	6,102	
과자	7,467	7,467	7,467	7,667	6,500	6,233	6,475	6,475	6,475	6,083	5,568	5,942	6,448	6,092	5,443	5,457	6,355	6,458	6,690	6,383	
시탕기류	0.93	0.91	0.92	0.93	0.87	0.83	0.78	0.79	0.79	0.74	0.65	0.68	0.79	0.73	0.66	0.68	0.79	0.79	0.82	0.79	
간장	6,608	7,317	7,217	7,217	6,100	5,633	5,967	5,983	5,850	5,758	5,308	5,125	6,033	5,500	6,100	6,052	5,080	5,338	5,618	5,295	
막된장	0.82	0.90	0.89	0.88	0.82	0.75	0.72	0.73	0.71	0.70	0.62	0.59	0.74	0.66	0.74	0.75	0.63	0.66	0.69	0.65	
된장	9,417	8,593	8,583	8,333	7,633	7,950	7,950	7,950	7,950	7,883	7,883	7,583	7,083	7,083	7,033	7,033	6,958	6,992	6,808	6,892	
고추장	1.17	1.05	1.06	1.01	1.02	1.06	0.96	0.98	0.96	0.96	0.93	0.87	0.87	0.85	0.85	0.88	0.86	0.86	0.83	0.85	
맛내기 (조미료)	2,967	2,967	2,967	2,883	2,517	2,267	2,267	2,267	2,267	2,167	2,167	2,167	2,125	2,417	1,837	1,812	1,802	1,833	1,855	1,918	
된장	0.36	0.37	0.35	0.34	0.34	0.30	0.27	0.28	0.28	0.26	0.25	0.25	0.26	0.29	0.22	0.23	0.22	0.23	0.23	0.24	
고추장	5,367	5,233	5,233	5,283	5,233	5,233	5,233	4,783	4,783	4,783	10,550	10,467									
막된장	0.67	0.64	0.65	0.64	0.70	0.70	0.63	0.59	0.58	0.58	1.24	1.20									
고추장	5,250	5,250	5,250	5,167	4,933	4,933	4,933	4,700	4,700	4,700	13,333	12,983	12,983	13,267	10,908	10,823	10,983	11,650	28,350	11,225	
맛내기 (조미료)	0.64	0.65	0.63	0.63	0.66	0.66	0.59	0.58	0.57	0.57	1.57	1.49	1.60	1.60	1.32	1.34	1.36	1.43	3.46	1.39	
맛내기 (조미료)	6,200	6,500	6,700	7,267	6,960	7,717	7,692	8,750	8,750	8,683	8,433	8,067	9,503	9,503	9,080	9,273	9,273	9,658	9,988	9,827	
시키린	0.77	0.80	0.83	0.88	0.93	1.03	0.93	1.07	1.06	1.05	0.99	0.92	1.17	1.15	1.10	1.15	1.15	1.21	1.22	1.21	
시키린					31,063	30,417	35,917	36,550	36,917	36,883	36,783	36,917									
시키린					4.16	4.07	4.32	4.48	4.48	4.48	4.32	4.23									
키퍼믹스	610	1,200	1,717	2,000	1,717	1,050	1,375	1,400	1,508	1,900			2,033	5,000	5,067	5,040	5,000	5,000	5,000	5,000	
키퍼믹스	0.08	0.15	0.21	0.24	0.23	0.14	0.17	0.17	0.18	0.23			0.25	0.60	0.61	0.63	0.62	0.62	0.61	0.62	
과일주스	1,417	3,900	3,933	3,933	3,683	2,917	2,700	2,750	2,750	2,750	2,750	2,633									
과일주스	0.18	0.48	0.48	0.48	0.49	0.39	0.33	0.34	0.33	0.33	0.32	0.30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샘물 (신터샘물)	1,000 0.12	1,500 0.18	1,000 0.12	1,000 0.12	900 0.12	900 0.12	900 0.11	933 0.11	933 0.11	883 0.11	633 0.07	592 0.07	533 0.07	500 0.06	533 0.06	537 0.07	542 0.07	502 0.06	1,270 0.16	1,083 0.13
소주						2,500 0.33	3,000 0.36	3,000 0.37	3,000 0.36	3,000 0.36	3,000 0.35	3,000 0.34								

주1: 농마국수의 단위는 1그릇임.

주2: 두부의 단위는 1모임.

주3: 생선 및 과일 통조림의 단위는 1개(150g, 400g)임.

주4: 맛내기의 단위는 450g임.

주5: 커피믹스의 단위는 유리통 1통 기준임.

주6: 과일주스와 생물의 단위는 1병(500ml)임.

주7: 소주의 단위는 1병(360ml)임.

1.7. 비료 및 농자재의 품목별 평균 가격

품목	2013_1	2013_2	2013_3	2013_4	2014_1	2014_2	2014_3	2014_4	2015_1	2015_2	2015_3	2015_4	2016_1	2016_2	2016_3	2016_4	2017_1	2017_2	2017_3	2017_4
비닐박막													733 0.09	750 0.09	792 0.10	967 0.12	1,030 0.13	1,015 0.12	1,097 0.13	1,196 0.15
삼													9,110 1.12	9,558 1.15	15,010 1.82	15,300 1.90	15,500 1.94	15,200 1.87	14,667 1.79	12,588 1.55
호미													5,133 0.63	5,042 0.61	5,075 0.62	5,083 0.63	5,460 0.68	5,617 0.69	5,167 0.63	5,167 0.64
낮													6,193 0.76	5,647 0.68	5,692 0.69	5,455 0.68	5,467 0.68	5,550 0.68	5,217 0.64	5,008 0.62
수동분무기													52,467 6.47	104,000 12.54	99,667 12.10	97,333 12.09	99,000 12.28	99,000 12.18	96,583 11.79	91,083 11.24
질소비료													3,109 0.38	2,886 0.35	2,177 0.26	2,013 0.25	2,142 0.27	4,956 0.61	1,378 0.17	938 0.12

주1: 비닐박막의 단위는 1m임.

주2: 비료의 단위는 1kg임.

주3: 삼, 호미, 낮, 수동분무기의 단위는 1개임.

E02-2018-01 KREI 북한농업동향 제20권 제1호

찍 은 날	2018. 6.	펴낸날	2018. 6.
발 행 인	김 창 길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061-820-2000)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 02-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